

## 제Ⅱ부

### 요소분류

심층(深層) · 표층(表層)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그들 제요소를 분류하고, 어느 정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형식실체」와 「포함실체」의 2종류의 특수한 실체를 소개하고,

제7장에서는, 동사

제8장에서는, 형용사

제9장에서는, 「연속묘사사」와 「포함실체수식묘사사(包含實體修飾描寫詞)」에 대해

제10장에서는, 조동사에 대해 말한다.

제11장에서는, 단정기(斷定基)에 대해 서술한 다음, 「도격의 탄생」, 「본래의 격」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 다루는 요소분류는, 또한 동시에 품사의 분류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이 문법이 설정하는 개개의 품사가 전체 중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도 병행해서 나타내는 것이 된다.

## 제5장

# 요소분류 (품사분류)

### 5.1 「詞」와 「語」

「詞」…이 문법에서는, 형태소를 「詞」라고 부르고 있다. 형태소라는 것은, 그 이상 분해하면 의미가 소실되어 버리는 것 같은, 의미를 담당하는 최소단위이다.

예를 들면 「行く(가다)」라는 말은, yuk-u라는 식으로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yuk-도 -u도 의미를 담당하는 최소단위로서 형태소이다. 따라서 양쪽 다 「詞」이다.

「詞」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표5-2~표5-6에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yuk-라는 詞가 「동사」이고, -u라는 詞가 「묘사사(描寫詞)」인 것은, 그 표를 보고 알 수 있다. (「묘사사」는 「변환사(變換詞)」라고 불리도 좋다. 「2.6 속성명표시(属性名表示)」 참조) (「-」를 「결합수(結合手)」라고 한다.)

「語」…그런데, yuk-도 -u도, 그대로 단일 형태로는 실제의 말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양자(両者)는 서로 결합해서 yuk-u가 되어 표충화된다. 표충에서는 이렇게 되어 처음으로 안정된 단위체(单位体)가 된다. 이와같이, 표충에서 안정되는 최소의 단위체를 「語」라고 부르기로 한다.<sup>7)</sup>

yuk-u는, 동사가 중심의 「語」이므로, 「동사이(動詞語)」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동사이」의 경우는 「동사」와 「묘사사」가 결합해서 「語」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것과는 다른 종류의 「語」도 있다. 예를 들면, kao- (顔(얼굴))라는 명사적 실사(實詞)는, 심충에서는 반드시 주격이든 객격(客格)이든 격(格)에 위치해 있다. 표충화될 때는 생략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θ<sub>1</sub>, -ga, -o, -ni 등, 무엇인가 격사(格詞)를 동반한다 (예:kao-ga). 또, 격사(예:-ga)도 그것만으로는 표충에 존재할 수 없다. 즉, 명사적 「실사」와 「격사」는 결합하고나서 처음으로 표충의 단위체 「語」가 된다. (예:kao-ga) 「실사-격사」라는 형태로 말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실사이(實詞語)」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실사이」는 「동사이」와는 양상을 달리 하고 있다. (이 외에, 「형용사이」, 「전체묘사이」가 있다.)

### 5.2 4요소…구조와의 관련방식으로 요소를 4종류로 분류한다.

그러면, 제요소를 분류해 보자. 크게 나누면, 2개의 그룹으로 된다. 「구조를 만드는 요소」와 「구조를 읽는 요소」이다. (이것은 하드(hard)적 요소와 소프트(soft)적 요소로서 간

7) 이것은 「語」의 제1단계에서의 정의이다. 제2단계에서는, 語와 詞·語가 「병합」해서 「외형의 詞·語」를 형성한다. 병합기호를 「=」로 하고, 「병합수(併合手)」라고 부르기로 한다.

예 : yuk-u=e- (行方(행방)... 「외형의 詞」)

yuk-u=e-o (行方を(행방을)... 「외형의 詞」)

주 할 수도 있다.)

「구조를 만드는 요소」는 다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① 「실체」, ② 「속성」, ③ 「격」이 된다. 「구조를 읽는 요소」는 ④ 「묘사법」의 하나이다. 각각에 기호를 붙여서, ①J, ②Z, ③K, ④B라고 한다. 제요소는, 즉, ①~④의 4개의 요소로 분류가 가능하다. (표 5-1)

표5-1

(요소분류)

요소	구조를 만드는 요소	①	실체	J
		②	속성	Z
		③	격	K
	구조를 읽는 요소	④	묘사법	B

표5-1을, 각각의 요소에 대응하는 「詞」를 사용하여 다시 고쳐쓰면, 표5-2처럼 된다. 표5-2에서는 더욱 하위분류와 그 기호를 덧붙여 써 놓는다.

표5-2

(품사분류)

詞	구조를 만드는 詞	①	실사(實詞) J	실사(實詞)(비포함실사(非包含實詞))	Jr
				포함실사(包含實詞)	Jh
				동사	Zd
		②	속성사(属性詞) Z	형용사	Zk
				태사(態詞)	Zt
				조동사	Zz
				부정사	Zh
		③	격사(格詞) K	주격사(主格詞)	Ks
				객격사(客格詞)	Kk
	구조를 읽는 詞	④	묘사사(描寫詞) B	전체묘사사	Bz
				부분묘사사	Bb

다음으로, ①~④의 각 詞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두자. 상세한 것은 장을 개정해서 서술하도록 한다.

① 실사(實詞)…실사는 실체에 대응한다. 말하자면, 명사·형용사어간, 형용동사어간, 대부분의 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사의 결합수(結合手) (-)는, 원칙적으로 격사와의 결합을 지향한다. (융합, 병합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의 분류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고, 우선, 포함실사와 비포함실사로 분류된다. 다음에, 대응하는 실체가 구조상 형용실체가 되는가 어떤가, 어떤 격에 위치하는가, 실질적인가 형식적인가 등에 의해서도 분류된다.

② 속성사(属性詞)…속성사에는 표5-3에 나타낸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속성사의 결합수(結合手) (-)는, 최종적으로 묘사사(밀줄 친 부분)을 요구한다.

예: nom-oo, nom-as-u, nom-as-e-reba

표5-3 (속성사(属性詞))

동 사	A	sak-, nobor-, mi-, tabe- 등
	B	demo. r-, iki. m-, omosiro. gar- 등
	C	駐車=S-, 評=S-, 論=Z- 등
형 용 사	aka. k-, tuyō. k-, tadasi. k-, na. k- 등	
태 사(態詞)	-(s)as-, -(r)ar-, -e-	
조 동 사	=ma)s-, =t(e)-, =a(r)-	
부 정 사	-(a)na. k-, -(a)n-, -en-, -(a)z-, =na. k-	

③ 격사(格詞)…주격사(主格詞)와 객격사(客格詞)가 있다.

표5-4

(格詞)

주格詞	-Ø <sub>1</sub> , -ga <sub>1</sub> , -ga <sub>2</sub>
객格詞	-o, -ni, -e, -de, -to, -kara, -yori, -made, -Ø <sub>2</sub>

④ 묘사사(描寫詞)…「전체묘사사」와 「부분묘사사」가 있다.

[전체묘사사]…구조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구조 전체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과 관계 있는 詞

표5-5

(전체묘사사)

구조의 인정(認定)에 관계되는 묘사사	はい、うん、いいえ、いや、か、ね、ぞ、よ、とも
여러가지 구조의 존재를 암시하는 묘사사	おい、え、こら、バイバイ、さあ、どっこいしょ、ええと

[부분묘사사]…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詞

표5-6

(부분묘사사(部分描寫詞))

속성묘사사	기본 묘사사 (基本描寫詞)	동 사 에 결 합	- (r)u	형 용 사	-i
	실체수식 묘사사 (實体修飾描寫詞)		- (r)u		-i
	포함실체수식 묘사사 (包含實体修飾描寫詞)		-(i)		-u
	연속 묘사사 (連續描寫詞)		-(i)		-u
	가정 묘사사 (仮定描寫詞)		-(r)eba	에	-ereba
	명령 묘사사 (命令描寫詞)		-e / -ro	결	/
	실현예상 묘사사 (実現見込み描寫詞)		-(y)oo	합	/
	비실현예상 묘사사 (非実現見込み描寫詞)		-(u)mai		/
	전개 묘사사 (展開描寫詞)		기(基)에 결합 -a(ba)		
상대화묘사사	타실체수반 묘사사 (他實體隨伴描寫詞)		も、さえ、でも、だって		
	타실체배제 묘사사 (他實體排除描寫詞)		こそ、さえ		
	자실체배제 묘사사 (自實體排除描寫詞)		しか		
	실체테두리 묘사사 (實体ふちどり描寫詞)		は		
실체간묘사사	실체연결 묘사사 (實体つなぎ描寫詞)		の		
	동격실체열거 묘사사 (同格實體列舉描寫詞)		と、に、や		
대우묘사사			お、ご、様、ちゃん 등		

### 5.3 문장은 4요소로 구성된다..... J-K Z-B

일본어의 문장은 이상의 「실사 J」, 「속성사 Z」, 「격사 K」, 「묘사사 B」라고 하는 4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月が<sup>出</sup>る(달이 뜨다)」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詞로 분해할 수 있다.

tuki-ga de-ru (月が<sup>出</sup>る)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J-K Z-B (상세표기로는 Ji-Ks Zd-Bb)

이것으로, 문장이 J-K Z-B (실사-격사 속성-묘사사)라는 4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ここに花が咲いている。」

koko-ni hana-ga sak-i=te-ϕ=i-ru (ここに花が咲いている)

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다.

J-K J-K Z-B=Z-B=Z-B

(상세표기로는 Ji-Kk Ji-Ks Zd-Bb=Zz-Bb=Zd-Bb)

역시 4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기호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J는 반드시 K와 결합하고, Z는 반드시 B와 결합한다.

J-K Z-B (실사(實詞)-격사(格詞) 속성(属性)-묘사사(描写詞))

이것이 기본이고, 문장 속에서는 이것이 단위가 된다. 「語」이다. (5.1참조)

J-K는 명사어 (-B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이다.

Z-B는 동사어 또는 형용사어이다. (양쪽語에 =Z-B라는 형태로 조합되는 조동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본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실체는 반드시 어떤 격에 위치해 있고, 속성은 반드시 묘사사를 동반하고 묘사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K에 상당하는 詞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水\_飲む(물\_마시다)), 또, B에 상당하는 詞는 음운적인 이유로 제로화(zero化)되는 일이 있지만 (tabe-ϕ=hajime-ru), 그러나, 요소로서의 K와 B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J-K는 B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Z-B는 몇 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 Z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에는 Z-B의 형태가 된다. 문장의 끝은 Z-B가 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로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これはきのうの新聞だ。 (이것은 어제의 신문이다.)

Kore-ϕ 1-wa	kinoo-ϕ 2-no	sinbun-d=a-ϕ
J-K-B	J-K-B	J-K=Z-B

彼は去年車体の赤い車を買った。 (그는 작년 차체가 빨간 차를 샀다.)

Kore-ϕ 1-wa	kyonen-ϕ 2	syatai-ϕ 1-no	aka.k-i	kuruma-o	kaw-i=t-ϕ=a-ϕ
J-K-B	J-K	J-K-B	Z-B	J-K	Z-B=Z-B=Z-B

ボクは毎日彼がしかられるのを見ます(나는 매일 그가 혼나는 것을 봅니다.)

Boku-ϕ 1-wa	mainiti-ϕ 2	kare-ga	sikar-ar-e-ru	no-o	mi-ϕ=mas-u
J-K-B	J-K	J-K	Z-Z-Z-B	J-K	Z-B=Z-B

わたしは歌が歌えないので手品をします。(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마술을 하겠습니다.)

Watasi-∅ i-wa uta-ga uta-e-na. k-i no-de tezina-o s-i=mas-u  
J-K-B J-K Z-Z-Z-B J-K J-K Z-B=Z-B

#### 5.4 「文」이란 무엇인가?

「문(文)」을 우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것을 제1단계에서의 정의로 한다.

「文」이라는 것은 심층의 판단구조를 자기를 향해,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 전달하기 위한 표층형식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구조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성에 의하든지 몸짓에 의하든지 어떤 형태이든지라도, 전달이 가능하다면, 그 형태가 「文」이라는 것이 된다.

구조의 전달법에는 2종류가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文」에는 2종류가 있다는 것이 된다.

- ① 「구조요소전달문」…… 구조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묘사해서 전달하는 형식의 文
- ② 「구조존재전달문」…… 그 판단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구조의 구성요소와는 관계없이, 일정의 묘사사로 묘사하는 형식의 文

이렇게 2종류이다.

②의 「구조존재전달문」부터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원숭이가 위험에 닥쳤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행하고,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 원숭이 동료들에게 이해 가능한 어떤 울음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이는 위의 정의에 합당하므로 「文」이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익숙한 노래를 아무 생각없이 조금 흥얼거렸을 경우, 노래 그 자체는 가사라는 형태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때의 판단구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노래는 「文」이 아니라 단순한 발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다만, 자신은 지금 긴장을 풀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자기 또는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는 경우라면 「文」이라는 것이 된다.)

이 ②의 형식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일본어의 표층형식은 묘사사 중에서 「전체묘사사」(일부제외) (표5-5)이다.

②의 형식은, 어떤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형태이므로, 「구조존재전달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한편, ①의 「구조요소전달문」은, 심층구조의 요소와 표층의 언어형식이 하나하나 대응하는 형태이고, 구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듣는 이에게 그 구조를 정확히 재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이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형태의 전달법의 구조이다.

이 ①의 형태에서의 「文」의 정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제2단계에서의 정의로 한다.

「文」이라는 것은 심층의 판단구조의 정확한 재현을 목적으로, 구조요소를 순서에 따라 묘사한 것이다. 「文」으로서의 요소 배열의 기본은 J-K Z-B의 형식이다. 정확한 재현이 목적이라고는 해도, 구조의 전부를 묘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한다.

여러가지 변화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문장으로서의 기본형식은 J-K Z-B라는 어순이다.

구조를 전하려고 하는 표층형식은 모두 文이지만(제1단계 정의), 특히 순서에 따라 구조요소를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이 전형적인 文이다. (제2단계 정의)

## 제6장

## 実体(実詞)

实体(実詞)에 대해서는 1.2 「주체, 객체는 모두 실체」에서 서술했다. 여기에서는 「형식실체」(특히 「형식실체A」)과 「포함실체」를 다룬다.

### 6.1 형식실체(形式実体)

형식실체로 분류되는 것에는 A~E가 있다.

「형식실체A」(무속성실체)……속성의 원반에 구멍을 뚫는다. 실체의 결여로서 기능한다.

「なに」(무엇) 「どれ」(어느것) 「どこ」(어디) 「だれ」(누구) 「いつ」(언제)  
 「なぜ」(왜) 「いくら」(얼마) 「どっち」(어느 쪽) 「どちら」(어느쪽) 「どう」(어떻게) 등

「형식실체B」(단일속성실체)……그것만으로는 공(空)이지만, 그 때의 속성에 의지되어, 실체로서 기능한다.

「なにか」(무엇인가) 「どれか」(어느 것인가) 「どこか」(어딘가) 「だれか」(누군가)  
 「いつか」(언젠가) 등  
 (「형식실체A」의 「구멍」이 「か」에 의해 채워진 것.)

「형식실체C」(상황의존실체)……그것만으로는 공(空)이지만, 상황속에서 속성이 채워져 실체로서 가능하다.

「これ」(이것) 「それ」(그것) 「あれ」(저것) 「ここ」(여기) 「そこ」(거기) 「あそこ」(저기)  
 「いま」(지금) 「今日」(오늘) 「明日」(내일) 「今年」(올해) 「去年」(작년) / 「自分」(자신) 등  
 (평판형(平板型) 엑센트로, 「예를 듣 것」이라는 의미의 「なに」(무엇)

「형식실체D」(화자의존실체)……그것만으로는 공(空)이지만, 화자(話者)가 누구인가가 결정 되는 것에 의해 속성이 채워져 실체로서 기능한다.

「私」(저) 「あなた」(당신) 「彼」(그) 「彼女」(그녀) 「僕」(나) 「君」(너) 등

「형식실체E」(무명대용실체(無名代用実体))……통상의 실체 대신에 놓인다.  
 「の」(「の」는 실체명(実体名)이 아니고, 기능명(機能名). 36. 6참조)

## 6.2 형식실체A

「형식실체A」라는 것은, 의문사를 말하는 것이다. 의문사를 어떻게 모델화하는지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だれ」(누구)를 다루지만, 다른 것도 여기에 준한다.)

### 1) 의문

「だれが歌う?」(누가 노래해?)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해 2개의 의문이 있다.

①항상 「だれが歌う?」(누가 노래해?)이다. 왜 「だれハ歌う?」(누구는 노래해?)라는 식으로 「が(가)」를 「ハ(은/는)」로 바꿀 수 없는 것인가?

②왜 이 문장에는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 2) 설명

「だれ」(누구)라는 것은 「실사」이고, 판단구조에서는 「실체」이다(1.2참조). 그러나, 이 것은 보통실체와 닮았어도, 똑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가. 속성을 끄집어낼 수 없다.

나.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犬(개)」라고 이름 붙여진 실체에서는 「動物だ(동물이다)」든지 「ほえる(짖는다)」든지 「走る(달린다)」든지, 몇 가지의 속성을 즉석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犬」와 같은 보통실체는 「속성의 집합체」라는 것이 가능하다. (1.1의 주(注) 또는 2.2 1) 참조)

한편, 「だれ(누구)」라고 불리워지는 실체는 속성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だれ」가 「속성의 집합체」가 아니라, 속성이 없는 형식만의 실체 「형식실체A」(「무속성실체」)이기 때문이다.

속성이 없는, 형식만의 실체라면, 구조모델은 図6-1, 2와 같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 図6-1은 「だれ」가 주격에 있는 경우, 図6-2는 「だれ」가 객격에 있는 경우의 구조도이다. 보통이라면 실체의 원주가 위치해야 할 곳이, 공(空)이 되어 있다.

「형식실체A」는 이렇게, 속성의 원반에 마치 투명한 실체가 서 있는 것 같은 구멍을 뚫는 것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だれ」는 속성의 원반에 뚫어진 구멍(실체의 결여)으로서 모델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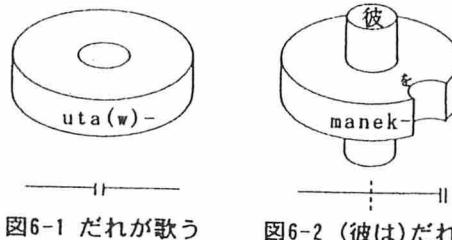


図6-1 だれが歌う

図6-2 (彼は)だれを招く

「だれ」를 이런 구멍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첫째로 「だれ」는 구멍이기 때문에, 속성원반이 설정되기 이전에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즉, 실체 「だれ」의 설정은 속성의 설정과 동시에 일어나거나 더 늦게 일어난다. 그래서, 실체가 주격에 있는 경우는 그 주격은 제1주격이 아니라, 제2 내지는 제3주격이 되는 것이다 된다. (주체와 속성의 논리적인 설정순서와 격표시관계에 대해서는 2.2참조)

따라서, 주격의 「だれ」는 항상 주격사 「が(가)」를 취하고, 「φ」을 취하지 않게 된다. (「だれが歌う。(누구 노래한다.)」라는 식으로, 「が」가 생략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만,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또, 구명이기 때문에 「데두리리본」을 감거나, 스포트라이트를 주거나 하는 것은 우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だれ」가 「は(은/는)」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3.1③참조)  
이것은 주격의 경우는 물론, 객격의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だれ」가 주격인 경우.....보통 「だれハ歌う?(누구는 노래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だれ」가 객격인 경우.....보통 「(彼は)だれハ招く?((그는) 누구는 초대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문① 「왜 항상 が(가)」이고, が를 ハ(은/는)로 바꿀 수 없는가」에 대한 구조전달문법식의 설명이다.<sup>8)</sup>

두 번째로 속성이 원반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는 점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그 구멍은 메울 필요가 있다. 거기에 서 있어야 할 실체를 보충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 요구가 희답을 재촉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だれ」가 주격, 객격인 어떤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だれが歌う?(누가 노래해?) → 林さんが歌う。(하야시 씨가 노래해) (주격실체<sup>9)</sup>를 보충한다)  
だれを招く?(누구를 초대해?) → 林さんを招く。(하야시 씨를 초대해) (객격실체를 보충한다)  
이것이 의문② 「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구조전달문법식의 설명이다.<sup>10)</sup>

### 6.3 포함실체(包含実体).....구조를 내장하는 실체

다음에 포함실체에 대해 설명하겠다.

지금 연체수식어에 의해 수식된 실사(實詞)가 여기에 있다.

①彼がnor-uバス(그가 타는 버스) (図6-3) (4.2 2) 실체 수식묘사 참조)

②彼がバスにnor-uこと(그가 버스를 타는 것)

①에서는 실사 「バス」(버스)에 수식되고 있고, ②에서는 실사 「こと(것)」에 수식되고 있다. 이 두 개의 詞의, 속성사 nor-와의 관계를 보면, ①의 「バス」쪽은 nor-에 대해 격관계(に格)에 있는(①') 한편, ②의 「こと」쪽은 nor-에 대해 어떠한 격관계도 없다. (②')

①' 彼がバスにnor-u

②' 彼がバスにこと?nor-u

실사 「こと」는, 「彼がバスにnor-u」라는 구조 전체를 실사화(實詞化) (명사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어떤 구조 전체를 실사화하는 기능을 가진 실사는 구조에 있어서는 속성(nor-u)과 격에 관계없이 「포함」의 형태로 관계하고 있다. 図6-4에 나타내는 것처럼 「こと」라는 실체(원주)가 「彼がバスにnor-u(그가 버스를 탄다)」라는 하나의 구조전체(図6-3)를 포괄시키는 것이다.

8) 『岩波古語辞典』 p. 1496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は』는 이미 명확한事物을 받아드리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불 분명한 것, 의문사 등은 받지 않는다. (『は』は、すでに明確である物や事を承けるという性質を持つのが原則で、不明なもの、疑問詞などは受けないのである。)

9) 「林さんが歌う」.....여기의 「が」는 제3주격(「가<sub>2</sub>格」이다)

10) 構造伝達文法의 특징의 하나는 말로 나타난 表層形式이 왜 그렇게 되는지의 이유를 판단구조로 설명하려고 하는 점이다. 構造伝達文法은 설명문법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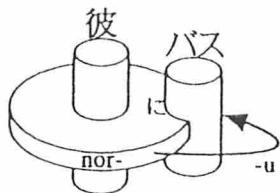


図6-3 彼が nor-u バ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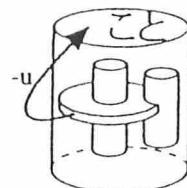


図6-4 彼が バスに nor-u こと

(実体修飾描写詞 -u は、矢印で表示する。4.2 2)参照。)

(실체수식묘사사 -u는, 화살표로 표시한다. 4.2 2)참조)

이 「こと」와 같은 실체를「彼(그)」「バス(버스)」와 같은 보통의 실체와 구별하기 위해, 「포합실체」라고 부르기로 하고, 「彼」「バス」와 같은 보통의 실체를「비포함실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포합실체」속에 포함된 구조를「부구조」라고 부르기로 한다.

「포합실체」는, 이렇게 어떤 구조(부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한편, 실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전체구조 속에서는 하나의 실체로서 가능한다. 예를 들면,

彼がバスにnor-uことはきのう聞い(た) (kik-i-t-a<sup>11</sup>)

(그가 버스를 타는 것은 이제 들었다.)

라는 표충문 중에서는, 포합실체로 되 있는 부분「彼がバスにnor-uこと(그가 버스를 타는 것)」이 하나의 실체로서 주구조 속에 위치를 잡는다. 図6-5, 6이 그것이다.

포합실체는 구조를 다른 구조에 맞춰 넣기 위한 캡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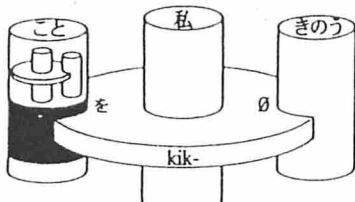


図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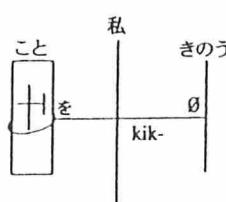


図6-6 簡略表示

(「こと」에 감겨져 있는 리본·띠는「は」(은/는)을 나타낸다. 3.1③참조)

이런 포합실체인 것은「こと(것)」만이 아니다.「ところ(곳)・もの(것)・わけ(이유)・ため(때문)・つもり(예정)・とき(때)・まえ(전)・あと(후)・はず(당연히 ~할 것)・らし(같은)・よう(같은)・結果(결과)・ほう(쪽)」등등의 캡슐이 있고, 각각에 이런 이름이 붙여 있다. (일본어국어문법의「형식명사」등이 여기에 해당). 그리고, 또「φ包・の」가 있다.

#### 6.4 포합실체의 의의..... 왜 문장의 명사화가 필요한가?

포합실체는 구조를 실체화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런 실체화라는 수속은 왜 필요한 것일까? 이 물음은 표충문 레벨에서「왜 문장을 명사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형태로 고쳐 질문할 수 있다.

이 물음에는「구조를 관계 속에 놓기 위함이다」, 또는 보다 정확히「구조를 다른 구조 속에 넣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6.3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면

① 彼がバスに乗る(그가 버스를 탄다) (図6-3)

11) -i-t-a의 부분은 제10장「조동사」, 특히 10.5 완료기(完了基) 참조

라는 하나의 구조가 있는 경우, 이 구조는 이것으로 완결된 독립된 구조이다. 이것을

②(その情報)を私はきのう聞いた。((그 정보)를 나는 어제 들었다.)

라는 구조 속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체화(명사화)해서, ②의 속성「聞く(듣다)」의 「を格」(을/를 격)에 놓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私は[彼がバスに乗ること]をきのう聞いた。 (图6-5)

(나는[그가 버스를 타는 것]을 어제 들었다)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구조는 실체화해서 비로소 다른 구조 속에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를 실체화하는 것은, 그 구조를 다른 구조 속에 놓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구조를 포함실체 속에 맞춰넣는 것은 그 구조를 다른 구조와의 관계 속에 넣기 위한 준비이다.

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표층레벨의 것으로 바꿔 말하면,

문장을 명사화하는 것은, 그 문장을 다른 문장의 일부로 삼기 위함이다.

또는,

문장을 명사화하는 것은 그 문장을 다른 문장과의 관계에 놓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彼がバスに乗るの(그가 버스를 타는 것)

라는 형태로 하나의 구조가 실체화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 구조를 다른 구조와의 관계 속에 놓으려는 의도의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37. 1③)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포함실체에 의해 어떤 관계가 야기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새로운 의문이 된다.

포함실체에는 여러가지가 있기(6. 3) 때문에, 사용하는 포함실체에 의해 다양한 관계가 야기된다. 예를 들면 「ところ(~하는 참)・とき(~할 때)・まえ(~하기 전)・あと(~한 후)」 등에 의해 시간적 관계가, 「ため(~때문)・から(~때문)・結果(~결과)」 등에 의해 인과관계가 야기된다. 또, 범용성이 높은 「の」에 의해 다양한 관계가 야기된다. 자세한 것은 새로운 장에서 서술하게 된다. (포함실체 「の」에 대해서는 36. 8, 9 및 37. 1, 2참조)

## 6.5 포함실체내의 주격.....が格

그런데, 부구조(포함실체내의 구조)는, 포함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미 성립하고 확정된 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부구조에서는 주체와 속성설정에 선후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 즉, 주체와 속성설정이 동시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구조에서는 주체가 제2주격(が<sub>1</sub>格)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즉, 연체수식절 내에서는 주어가 「φ<sub>1</sub>」에 의해서가 아니라, 「が」에 의해서 격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sup>12)</sup>. (2. 2참조)

더구나, 형식단정기(形式断定期) (11. 4)에 있어서의 형식적포함실체인 경우 같은 사정이 다르다.

12) 왜 종속절의 주어가 「φ<sub>2</sub>」가 아니라 「が」를 취하는 것인가의 구조전달문법식의 설명이다.

## 6.6 제로(zero)의 포함실체.....이름이 없는 포함실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彼にa(w)-uには予約がir-u。 (彼に会うには予約が要る。)

(그를 만나는데는 예약이 필요하다.)

이 문장에서는 「彼に会う(그를 만난다)」 전체(図6-7)가, 격사(格詞) 「に」를 동반하고, 실사(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会う(만난다)」는 속성(동사)이고, 이대로 실체로서 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의 포함실체」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図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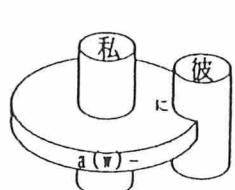


図6-7 私ø、彼に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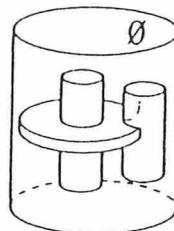


図6-8 ゼロの包含実体

「제로의 포함실체」라는 것은, 즉 「こと」(~것)라든지 「もの」(~것)라든지 하는 호칭을 갖고 있는 않은 포함실체이고, 이것을  $\emptyset$ 包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보통의 포함실체와는 다르고, 의미를 갖지 않고, 구조를 그대로 실체화한다.

彼にa(w)-u  $\emptyset$ 包には予約がir-u。

a(w)-u의 -u는 실체수식묘사사(實體修飾描寫詞)이다.

이 문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図6-9, 10처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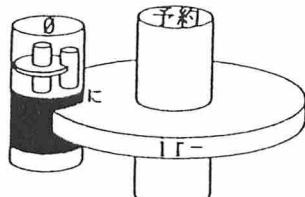


図6-9 彼に a(w)-u Ø包 には 予約が i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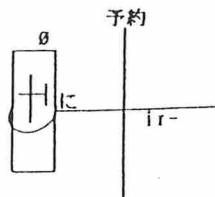


図6-10

제로의 포함실체가 발견되는 예로서 몇 가지 문장을 들이 보겠다.

北海道へ行く  $\emptyset$ 包よりハワイへ行く方がいい。(より격 포함실체)

(홋카이도에 가는  $\emptyset$ 包보다 하와이에 가는 편이 좋다.)

聞く  $\emptyset$ 包は一時の恥、知らぬ  $\emptyset$ 包は一生の恥。(주격포함실체)

(묻는  $\emptyset$ 包은 한 때의 부끄러움, 모르는  $\emptyset$ 包은 일생의 부끄러움.)

一度彼女と話してみる  $\emptyset$ 包がいい。(주격포함실체)

(한 번 그녀와 이야기 해보는  $\emptyset$ 包이 좋다.)

## 6.7 포함실체구조의 예

포함실체의 구조예를 나타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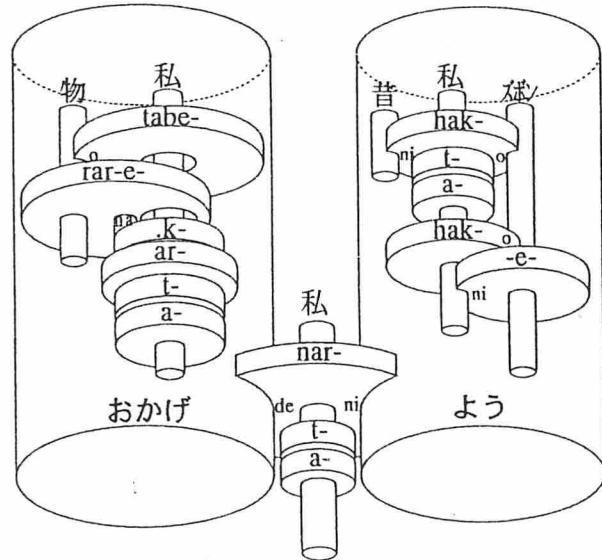


図6-11 物を食べられなかつたおかげで、昔のズボンがはけるようになった。

(「物が食べられ～」의 경우는 부정구조가 「物」을 주체로 하는 것이 된다.

## 제7장

# 동사

동사에는 다음과 같이, 「동사A」 「동사B」 「동사C」를 설정한다.

7.1 동사A sak-(咲く( 피다)), mi-(見る( 보다))와 같이, 본래적인 동사를 동사 A라고 한다. 이 중에서는 다음의 「する(하다)」, 「来る(오다)」도 포함한다.

이른바 サ행 변격활용동사 「する」는, 동사(이른바 이간) 그 자체가 s-, si-, su-, se-로 형태변화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대문자의 S-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같은 식으로 「来る」도, 동사가 k-, ko-, ku-로 형태변화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K-로 표시한다.

이 S-(する)와 K-(くる)를 「형태변화동사(形態變化動詞)」라고 이름 붙인다.

7.2 동사B kumo. r-(雲る(흐리다)), tuka. m-(つかむ(잡다)), haru. mek-(春めく(봄 기운이 느껴지다))와 같이 분석에 의해 실사(實詞)를 끄집어낼 수 있는 동사를 동사B라고 한다.

실사를 끄집어낸 후에 남은 r-, m-, mek-의 부분은 역시 형태소이고, 詞이지만, 구조상에 서조차 이것만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실사를 동반한다. (図7-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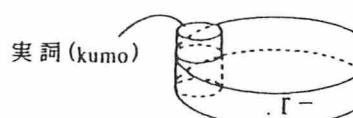


图7-1 く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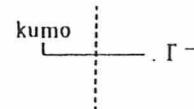


图7-2 くもる

실사를 동반해야 비로소, 구조상에 존재할 수 있는 단위가 되고, 통상의 詞가 된다.

그래서, 이런 詞를, 통상의 詞와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辞(사)」라 부르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辞」는 「動辭」이다.)

「辞」는 「詞」와 「音合」해서 새로운 「詞」를 형성한다.

「동사B」는 「음합」에 의해 형성된 동사이므로 「음합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음합」을 표시하는데 기호 「.」을 사용한다.

음합동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표시를 할 수 있다.

음합동사(融合動詞)=실사(實詞) . 동사(動辭)

くもる=kumo. r-

natukasi. m-, toki. mek- 등도 음합동사이다.

### 7.3 동사C 「～する」의 형태의 동사

「駐車する(주차하다)」「評する(평하다)」와 같이 어떤 실사와 동사「する」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처럼 된 것을 동사C라고 한다.

예를 들면 「駐車する」는 「駐車をする(주차를 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듯이, 실사(駐車)는 「を格」에 위치해서, 동사「する」와 병합(5.1 주(注) 참조)하고 있다. 「駐車-を(주차-를)」로 이미 말이 되어 있고, 여기에 S-가 「병합」해서 「외형의 詞(5.1注참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駐車=S-(駐車-を=S-와 같음)와 같이 표시한다. 「評する(평하다)」「論じる(논하다)」등도 이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する」그 자체에 대해서는 7.1참조)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図7-3, 4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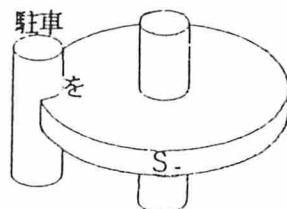


図7-3 駐車=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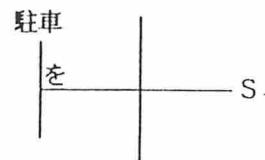


図7-4 駐車=S -

## 형용사

### 8.1 형용사의 모델화

형용사는 구조상으로는 형용속성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形容詞(형용속성)의 취급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예를들면, siro(白い(하얀))라는 형용사를 예로 들면, 이것을 siro. k-i와 같이 분석하고, siro를 실사, k-를 형용사(形容辭)<sup>13)</sup>, -i를 묘사사로 한다.

siro(실사)와 k-(形容辭)는 「융합」(.)에 의해 「形容詞(形容属性)」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융합」에 대해서는, 7.2 「동사B」참조)

「形容詞」를 구성하는 실사를 특별히 「形容實詞」라고 부르기로 한다.

형용사(形容詞) = 형용실사(形容實詞). 형용사(形容辭)-

siro.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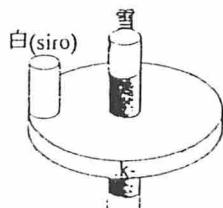


图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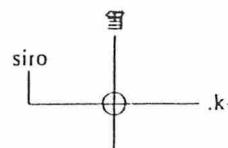


图8-2

### 8.2 「기본묘사사」와 「실체수식묘사사」

-i를 묘사사로 하는데, 여기에는 2종류가 있다. 「기본 묘사사 -i」와 「실체수식묘사사-i」이다.

「기본묘사사 -i」는

雪 φ は 白い (siro. k-i).

(눈 φ 은 하얗다.)

와 같이 어떤 구조의 묘사가 완결된 것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실체수식묘사사 -i」는

白い 雪 (siro. k-i 雪)

(하얀 눈)

과 같이 실사(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图8-3, 4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된다.

13) 「辭」라는 것은 실사를 동반해야 비로소 구조상에 존재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형태소이다. 어떤 詞와 융합하여 새로운 詞를 형성한다. (7.2동사 B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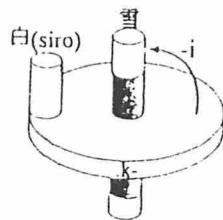


图8-3 白い(siro, k-i) 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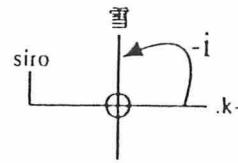


图8-4

또, 「실체연결묘사사ノ」에 대해서는 8.4③, 「연속묘사사 -u」에 대해서는 9.1, 「포함실체수식묘사사 -u」에 대해서는 9.2참조.

### 8.3 形容辭(. k-)의 제로화

형용사(形容辭)(. k-)는 -i에 의한 묘사(기본묘사, 실체수식묘사)에서는 제로화된다. 이 제로화를 「。」의 기호로 표시한다.

-u, -ereba에 의한 묘사에서는, 이 제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siro. k-u (しろく)	taka. k-u (たかく)	sugasugasi. k-ereba (すがすがしければ)
(하얗게)	(높이)	(상쾌하면)

단, 「ございます・ございません(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이이지는 경우에는 제로화할 수 있다.

### 8.4 형용실사의 명사적 독립성

형용실사의 명사적 독립성에는 단계가 있다. 몇 가지 단계의 예를 들겠다.

#### ① 형용실사가 그대로 명사인 것

siro. k-(白), aka. k-(赤), maru. k-(丸), sikaku. k-(四角),  
하얀(흰), 빨간(빨강), 둥근(원), 사각의(사각)  
sibu. k-(渋), zuru. k-(狡), waru. k-(惡)  
떫은(떫음), 교활한(교활), 나쁜(악)

#### ② 형용실사가 그대로 감동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

ita. k-(痛!)、atu. k-(熱!), samu. k-(寒!), kusa. k-(臭!)  
아픈(아파!), 뜨거운(뜨거워!), 추운(추위!), 냄새나는(냄새!)

#### ③ 형용실사가 「の(의)」를 동반하여 다른 실사를 수식하는 것

natukasi-no (なつかしの歌声(그리운 노래 소리))  
naga-no (永の別れ(긴 이별))  
omosiro-no (おもしろの雪景色(재미있는 눈경치)),  
itosi-no (いとしのエリー(사랑스런 에리))  
uruwashi-no (うるわしのサブリナ)(아름다운 사부리나)

이 구조를 도시(図示)하면, 图8-5, 6과 같이 된다. 「の」는 실체 연결묘사사이고, 화살표로 표시한다. (4.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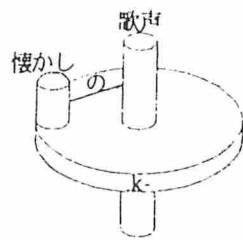


図8-5 懐かしの歌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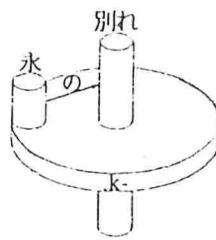


図8-6 永の別れ

#### ④ 형용실사로서만 기능하는 것

ko. k-(濃い(짙은)), tuyo. k-(強い(강한)), hido. k-(ひどい(심한))

### 8.5 形容基(. k- $\phi$ =ar-)

예를 들면, 완료기(完了基)(た) (10.5)는, 형용속성(siro. k-)에 동속성(動属性)ar-을 더한 것에 덧붙여진다. (10.6)

siro. k-  $\phi$ =ar-i=t-  $\phi$ =a-  $\phi$  (しろかった)

이 형용속성에 ar-을 덧붙인 것을 「형용기」라고 부른다.

xxxxx. k-  $\phi$ =ar-

라는 형식을 하고 있다. 형용기는 유사동사(擬似動詞)이다.

「기(基)」라는 것은, 詞가 몇 개 모여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전체로서 일정의 구조형식과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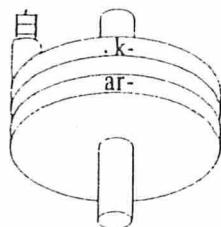


図8-7 形容基 siro. k-θ=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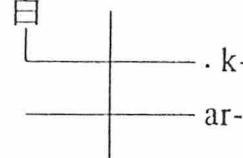


図8-8

### 8.6 形용속성정중화기(「いです基」)

형용속성을 공손한 형태로 하려고 할 때는, 「白いです(하얗습니다)」와 같이, 「です」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です」를 「형용속성정중화기」라고 부르기로 한다。(「です」는 11.1④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であります」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형용속성정중화기」는 다음 형식을 가지고 있다.

-i=  $\phi$  -de=ar-i=mas- (예: shiro. k-i=  $\phi$  -de=ar-i=mas-)

-i=  $\phi$  -de=  $\phi$  -  $\phi$  = s- (예: shiro. k-i=  $\phi$  -de=  $\phi$  -  $\phi$  = s-)

(mas-에 대해서는 10.2를, de=  $\phi$  -  $\phi$  = s-에 대해서는 11.1을 참조)

그래서, 밑줄부분을 근거로, 이 기를 간단히 「いです基」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기의 구조는 図8-9, 11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이 기 구조의 요소 중 하나인 포함실체  $\phi$  속에, 예를 들어 「雪は白い(눈은 하얗다)」라는 구조를 넣으면 「雪は白いです」가 되고, 정중한 표현이 가능하다. (图8-10, 12)

「白い siro. k-i(하얀)」가 포함실체  $\phi$ 에 연결되는 것은, 물론 「실체수식묘사-i」의 기능(화살표 표시)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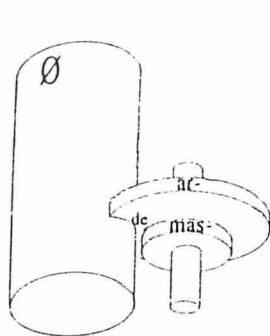


图8-9 形容属性丁寧化基(いです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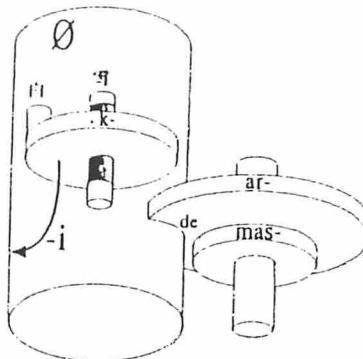


图8-10 雪は白い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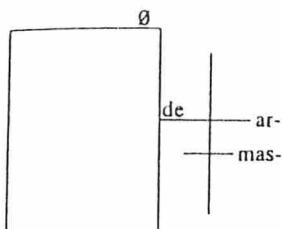


图8-11 「いです基」簡略表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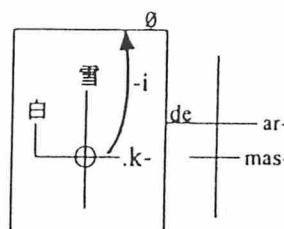


图8-12

이 「いです基」는 이대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정기(断定基) 「です(11. 1④)」 정도의 자유도가 없다. 단정기 「です」와 달리, 「だ」의 형식에서의 생략묘사(省力描写)나, 부정속성 -en-의 부가, 완료기(完了基)의 부가 등이 불가능하다.

단정기의 「です」라면,

- 「本です(책입니다)」 → 「本だ(책입니다)」
- 「本です(책입니다)」 → 「本ではありません(책이 아닙니다)」
- 「本です(책입니다)」 → 「本でした(책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いです基는,

- 「白いです(하얗습니다)」 → 「\* 白いだ」
- 「白いです(하얗습니다)」 → 「\* 白いではありません」
- 「白いです(하얗습니다)」 → 「\* 白いでした」

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白いでしょう(하얗겠지요)」는 가능하다.)

이 형용속성정중화기의 사용이 일본어에서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助詞助動詞詳説』(p. 300)에 의하면, 1935(昭和10年)년대 후반에도 가부(可否)가 논해지고 있었고, 1952(昭和27年)년의 「これからのお敬語(앞으로의 경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어 국어문법의 「형용동사」에 대해서는 p. 177주(注) 참조

## 학교문법의 형용사 활용형

형용사(aka. k-)는 형용실사(aka)와 형용사(形容辭)(. k-)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형용기(aka. k-∅ u=ar-)는 형용사와 동사ar-로 구성되고, 유사동사(擬詞動詞)로 되어 있다. 이 양자에 묘사사가 적용되어 단어가 된다. 일본어 국어문법에서의 활용형은 다음의 그를 친 부분을 다루고 있다.

形 式 の 種 類		形 式	学校文法
形容詞 aka. k-	+連続描写詞	aka. <u>k-u</u>	連用形
	+包含実体修飾描写詞	aka. k-u	連用形
	+基本描写詞	aka. <u>k-i</u>	終止形
	+実体修飾描写詞	aka. <u>k-i</u>	連体形
	+仮定描写詞	aka. k-ereba	仮定形
形容基 aka. k-∅u=ar-			
	+実現見込み描写詞	aka. k-∅u=ar-oo	未然形
	+完了基	aka. k-∅u=ar-i=t-∅=a-∅	連用形

가정형·미연형은 무의미하게 형식을 분할하고 있다. 미연형과 연용형의 하나는 형용사 그 자체가 아니라 형용기(유사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 제9장

## 묘사사

몇 개의 묘사사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했다(4.2). 여기에서는 「연속묘사사(連續描寫詞)」와 「포함실체수식묘사사(包含實體修飾描寫詞)」에 대해서 진술한다.

## 9.1 연속묘사사 -(i) / -u

「연속묘사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구조 혹은 속성을 「연속하여 묘사할 때에 속성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품사」이다.

속성이 동속성(動属性) · 태속성(態属性) · 조동속성(助動属性)이면 -(i)이고, 형용속성(形容属性) · 부정속성(否定属性)이면 -u이다. (국어문법의 연용형이다)

이 연속묘사에 의해서 「문장의 중지」혹은 「술이의 확대」가 행해진다.

## 1) 다른 구조단위를 계속해서 묘사하는 경우.....문장의 중지

복수의 구조단위<sup>14)</sup>를 연속하여 묘사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하는 경우

① 彼  $\phi_1$ はプールで oyog-i , 私  $\phi_1$ は部屋で雑誌を yom-u。 (図9-1)

그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나는 방에서 잡지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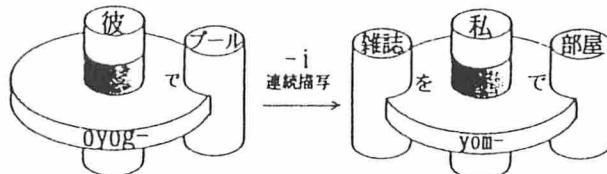


図9-1 異なる構造の連続描写

② 夏  $\phi_1$  は atu.k-u, 冬  $\phi_1$  は samu.k-i.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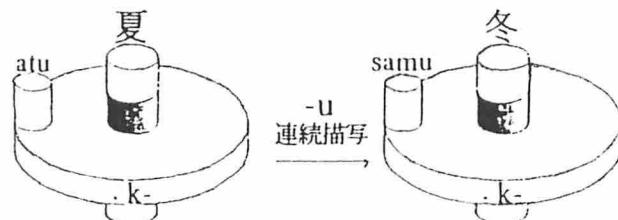


図9-2 異なる構造の連続描写

14) 한개의 动属性 및 形용속성과 그 属性에 서는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위적구조

- ③ 酒を yame- $\emptyset$ , 薬を nom-i, 健康が回復するのを mat-u.  
술을 끊고, 약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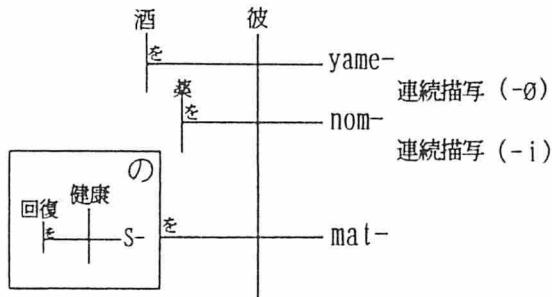


図9-3 同一構造内の構造単位を連続描写

- ④ haya. k-u aruk-u. (빨리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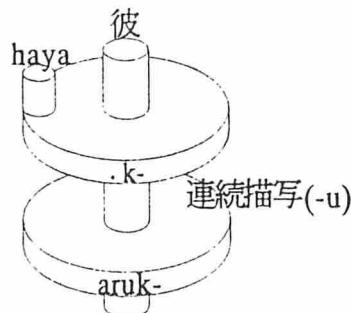


図9-4 同一構造内の構造単位を連続描写

## 2) 다른 속성을 연속해서 묘사하는 경우.....술어의 확대

다른 속성을 연속하여 묘사하고, 확대된 한 개의 술어로 하는 경우에 -(i)를 사용한다.  
併合手「=」<sup>15)</sup>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魚を tur-i=age-(魚を釣り上げ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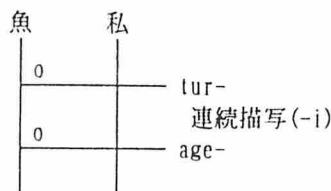


図9-5 複合化

魚を tabe- $\emptyset$ =mas-(魚を食べ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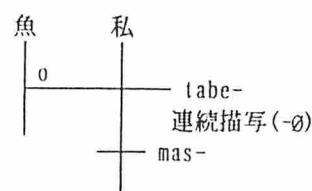


図9-6 助動詞で丁寧化

15) =표에 의해 다른 요소(語)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구조의 모습이 용이하게 파악되게 된다.  
다음의 상하를 비교하여 보면, 밑쪽이 훨씬 알기 쉽다.(=표 (併合手)에 대해서는 5.1주 참조)

yom-as-e- $\emptyset$ -mas-en- $\emptyset$ - $\emptyset$ -de-s-i-t- $\emptyset$ -a- $\emptyset$   
yom-as-e- $\emptyset$ =mas-en- $\emptyset$ = $\emptyset$ -de=s-i-t= $\emptyset$ -a- $\emptyset$

## 9.2 포함실체수식묘사사 (包含實體修飾描寫詞) -(i) / -u

## 1) 포함실체수식묘사사

「포함실체수식묘사사」라고 하는 것은 포함실체 내의 구조(부구조)의 속성에 그 포함실체를 수식시키기 위한 묘사사이다. 동속성(動属性)의 경우는 -(i)라고 하는 형식, 형용속성의 경우는 -u라고 하는 형식을 하고 있다. 이 때에, 포함실체는 무명(無名)의 제로포함실체이다. 속성사가 실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부구조가 동속성인 경우의 예로서는

彼はコーヒーを飲みに行く。 (図9-7)

그는 커피를 마시러 가다.

彼女は花を見に来る。 (図9-8)

그녀는 꽃을 보러 오다.

와 같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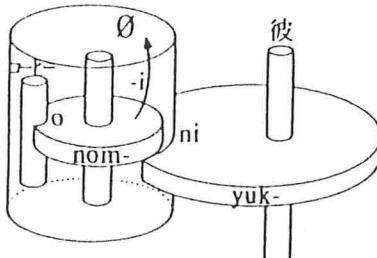


図9-7 コーヒーを飲みに行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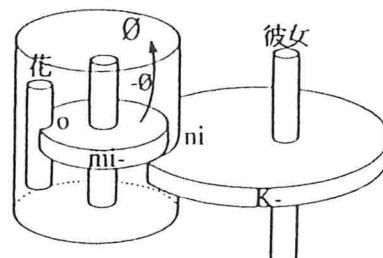


図9-8 花を見に来る

i) 예에서는, 포함실체내의 부구조, 즉 하선부가 실체화되어 있다.

彼  $\phi_1$  は コーヒーを nom-i=∅ 包-ni 行く。

그는 커피를 마시러 가다.

彼女  $\phi_1$  は 花を mi-∅=∅ 包-ni 来る。

그녀는 꽃을 보러 오다.

또, 부구조가 형용속성인 경우는 -u라고 하는 묘사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단,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형용속성은 「近. k-, 遠. k-, 早. k-, 遅. k-」 등 약간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

彼女  $\phi_1$  は too. k-u=∅ 包-kara 来る。 (図9-9)

그녀는 멀리서 오다.

彼  $\phi_1$  は 彼女-yori oso, k-u=∅ 包-made 泳ぐ。 (図9-10)

그는 그녀보다 늦게까지 수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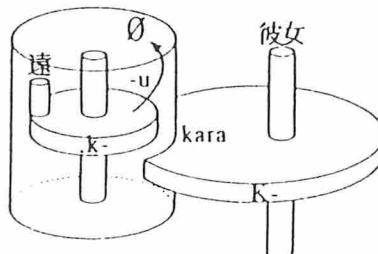


図9-9 彼女は遠くから来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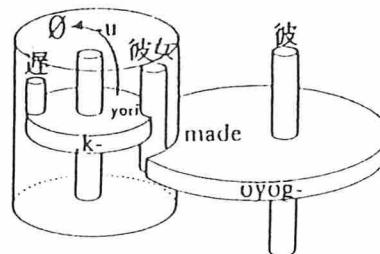


図9-10 彼は彼女より遅くまで泳ぐ

## 2) 이와 같이 수식된 제로포함실체가 의미하는 것

포함실체수식묘사사에 의해 수식된 제로포함실체는 포함하는 부구조와 함께,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사상명(事象名)..... 図9-7의 예에서는 「コーヒーnom-i=φ 包」가 사상을 명사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상에 붙인 명칭이 된다.  
(「～すること(하는 것)의 의미」)  
遊び(asob-i=φ 包)(놀기), 人任せ(hito-φ ni=makase-φ=φ 包)(남에게 맡김)
- 주체(主体)..... 그 행위를 행하는 주체를 나타낸다. (「～する人(하는 사람)의 의미」)  
酒飲み(sake-φ o=nom-i=φ 包)(술고래), 付き添(tuk-i=so-i=φ 包)(옆에서 수발드는 사람), 猿まわし(saru-φ o=maw-as-i=φ 包)(원숭이를 시켜 재주 부리게 하여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
- 도구(道具)..... 그 행위를 행하기 위한 도구를 나타낸다. (「～する物(하는 물건)의 의미」)  
湯飲み(yu-φ o=nom-i=φ 包)(찻잔), 靴下どめ(kutusita-φ o=tome-φ=φ 包)(양말대님)

## 3) 유명포함실체(有名包含実体)를 수식하는 경우

위에서는 포함실체수식묘사사는 제로포함실체 안의 부구조에 적용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方・ぶり・よう・ざま・手」와 같은 이름을 가진 포함실체안의 부구조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행위명..... 「方」  
煮方(ni-φ=kata)が足りない。(덜 익다.)  
撃ち方(ut-i=kata)、やめ! (사격 중지!)
- 방법..... 「方・よう」  
この料理の食べ方(tabe-φ=kata)を教えてください。(이 요리의 먹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彼は旅行中で、伝えよう(tutae-φ=yoo)がない。(그는 여행중이어서, 전할 방법이 없다.)
- 모습..... 「方・ぶり(っぷり)・よう・ざま」  
彼の走り方(hasir-i=kata)はユーモラスだ。(그의 달리는 모습은 우습다)  
(图9-11)  
彼女は飲みっぷり(nom-i=ppuri)がいい。(그녀는 술마시는 태도가 좋다.)  
彼の驚きよう(odorok-i=yoo)を見せたかった。(그의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彼の生きざま(iki-φ=zama)に惹かれて研究をはじめた。(그의 삶의 방식에 끌려서 연구를 시작했다.)
- (동시) すれちがいざま(suretiga(w)-i=zama)に声をかけられた。(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걸었다.)
- 주체..... 「方・手」  
売り方(ur-i=kata)と買い方(ka(w)-i=kata)の交渉が成立。(과는 쪽과 사는 쪽의 교섭이 성립.)  
話し手(hanas-i=te)の声が小さかった。(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작았다.)

또,

さすらいびと(sasura(w)-i=φ 包=hito) (방랑자)  
와 같은 것은 위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지 않다. 「さすらい(방랑)」는 이미 명사화되어 있

고 (sasura(w)-i=φ 包), 이 명사와 「ひと( 사람 )」이 격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ひとがさすらいをする( 사람의 방랑을 하다)), 「ひと」는 포함실체가 아닌 것이 된다.

さすらいをする ひと (sasura-i=φ 包-o=su-ru=hito) (방랑을 하는 사람)

さすらいの ひと (sasura-i=φ 包-φ o-no=hito) (방랑의 사람)

라고도 묘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图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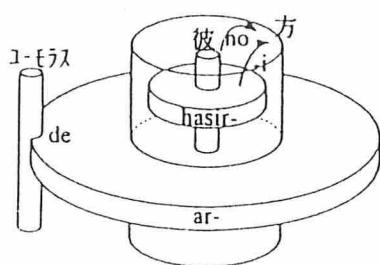


图9-11 彼の走り方はユーモラス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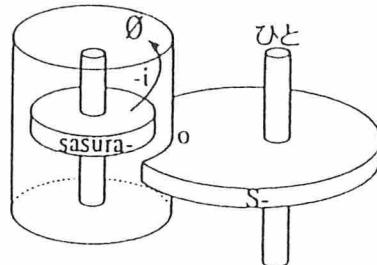


图9-12 さすらいひと

#### 4) 降りはしない(내리지는 않는다)

「降りはしない(내리지는 않는다)」, 「見もしない(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형태의 부정 구조에 대해서는 35. 3에서 진술한다.

## 제10장

# 조동사

### 10.1 조동사(助動詞)

원래 동사이면서 역사적 변화의 결과, 이미 동사로서 작용하지 않고, 특정의 의미에 있어서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조동사라고 한다.

구조전달문법에서는, 3개의 단어를 조동사로 하고 있다.  $=\text{(ma)s-와}$ ,  $=\text{t(e)-와}$ ,  $=\text{a(r)-이}$ 다. (=는「병합수(併合手)」, 5.1주 참조.)

구조상에서는, 조동속성(助動属性)은 반드시 동속성(動属性)에 부속되어, 결코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동속성보다 조금 작게 모델화한다. (图10-1)



图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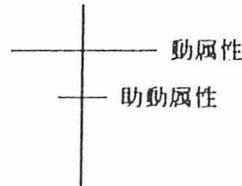


图10-2

조동사가 구구성(句構成)에 편입될 때의 표준 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동사-(i)=조동사-임의의 묘사사    연속묘사사	예: ur-i=mas-u  mi-∅=mas-yoo
-----------------------------------	-----------------------------------

(조동사가 연속하는 경우도 이것에 준한다)

그리면,  $=\text{(ma)s-}$ ,  $=\text{t(e)-}$ ,  $=\text{a(r)-}$ 를 순서대로 검토해보자.

### 10.2 정중의 조동사 $=\text{(ma)s-}$ ( $=\text{mas-}$ , $=\text{s-}$ )

「ます(입니다)」는, 헤이안(平安)시대의 「(物を)さしあげる、奉仕する(물건을 드리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まゐらす」 mawiras-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생긴 말이라고 전해진다.<sup>16)</sup>

まゐらす	mawiras-u	(平安)
まゐらする	mawiras-uru	
ま らする	ma ras-uru	(室町)
ま つする	ma s s-uru	(室町末期)

16) 「岩波古語辞典」·「日本文法大辞典」에 의함. 「まゐらす」는 구조를 생각하면 maw-ir-as-u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현대어 「ます」의 구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まゐらす」를 한개의 동사로 간주하면 되고, 그러한 분석에까지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ま っす

ma s s-u

ま す

ma s-u

(江戸中期)

이리한 기원을 가진 이 조동사  $=\text{(ma})\text{s-}$ 는, 동사구에 정중함을 더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중의 조동사(丁寧の助動詞)」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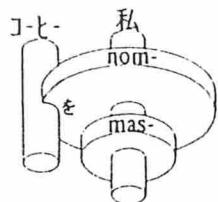


図10-3 コーヒーを飲み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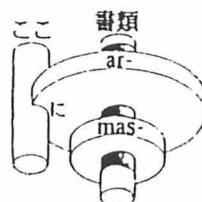


図10-4 書類はここにあります

$=\text{(ma})\text{s-}$ 는,  $=\text{de=ar-}$ 가 선행하는 경우, 동사(ar-)를 묘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text{mas-}$ 자신의 ma의 부분도 생략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 「です」가 생긴다. ( $=\text{mas-}$ 를 공식적으로  $=\text{(ma})\text{s-}$ 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text{de=ar-i=mas-} \quad (\text{であります})$ 

↓

↓

 $=\text{de=} \phi-\phi=\text{s-} \quad (\text{で } \underline{\hspace{1cm}} \text{す})$ 

(제11장 「단정기」 참조)

$=\text{(ma})\text{s-}$ 의 부정은,  $=\text{mas-}$ 에만 사용되는 부정사  $-en-$ 에 의한다. 그 때, 뒤의 기본묘사사  $-u$ 는 제로화된다.

 $yom-i=\text{mas-en-}\phi u$ 

### 10.3 개시후의 조동사 $=t(e)-$ ( $=te-$ , $=t-$ )

조동사  $=t(e)-$ 는, 완료의 조동사 「つ」의 연용형 「て」에 유래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완료의 조동사 「つ」는, 「물건은 의지적으로 눈앞에 펼개쳐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고어동사 「棄(う)つ」의 첫 모음 「う」가 탈락되어서 생긴 것이다.<sup>17)</sup> )  
구조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彼	hasir-
le-	i-

図10-5 走っている  
hasir-i=le-θ=i-

名前	o	人	kak-
o		le-	

図10-6 名前が書いてある  
kak-i=le-θ=ar-

折り紙	o	私	osie-	友達	ni
age-		le-			

図10-7 教えてあげる  
osie-θ=le-θ=age-

17) 「岩波古語辞典」 p.1473 및 p.150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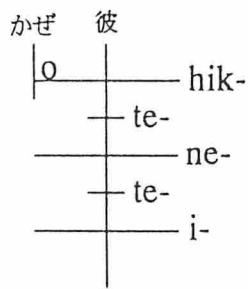


図10-8 かぜをひいて寝ている。  
hik-i=te-θ, ne-θ=te-θ=i-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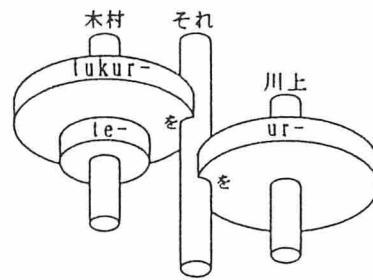


図10-9 木村さんが作って、川上さんが売る  
tukur-i=te-θ,

조동사  $=t(e)-$  는, 선행의 속성과 주체와의 「연결이 성립된 후」, 즉 「동작 등의 개시후」를 연상시키는 조동사이다. 그래서, 「개시후의 조동사」라고 이름짓는다. 개시후의 영역을 나타낸다. (13.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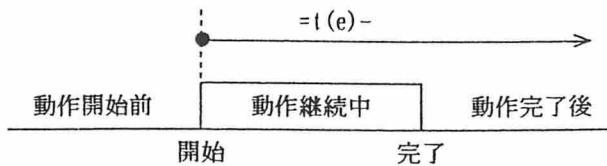


図10-10

조동사  $=t(e)-$  는, 또 하나의 조동사  $=a(r)-$ 를 연속시킬 때, e를 탈락시켜서  $=t-θ=a(r)-$  (10.5참조)가 된다.  $=te-$  를 공식적으로  $=t(e)-$  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조동사  $=t(e)-$  는, 연속묘사의 경우에, 선행의 동속성(동사)의 종류에 대응하여 「음편(音便)」 현상을 일으킨다.

동사에는, 동사말음(末音)이 모음의 경우와 자음인 경우가 있다.

모음의 동사말(動詞末)…… mi- (見る(보다)), tabe- (食べる(먹다))와 같이, i나 e의 어느 쪽이다.

자음의 동사말(動詞末)…… tob- (飛ぶ(날다)), nom- (飲む(마시다)), sin- (死ぬ(죽다)),  
nug- (脱ぐ(벗다)), sak- (咲く(피다)), tor- (取る(잡다)),  
kat- (勝つ(이기다)), ka(w)- (買う(사다)), kas- (貸す(빌려주다))  
와 같이 b, m, n, g, k, r, t, w, s의 9개 중의 어느것인가이다.

이 중, 음편형이 생기는 것은, s를 제외한 자음말동사의 경우이다.

음편의 현상을 표10-1에 정리해 두자.

표 10-1

(음편표)

동사	예	-i=t(e)-	음편형	예
b말동사	飛ぶ	00b-i=t(e)-	00n- =d(e)-	ton- =d(e)-
m말동사	飲む	00m-i=t(e)-		non- =d(e)-
n말동사	死ぬ	00n-i=t(e)-		sin- =d(e)-
g말동사	脱ぐ	00g-i=t(e)-	00 -i=d(e)-	nu -i=t(e)-
k말동사	喰く	00k-i=t(e)-	00 -i=t(e)-	sa -i=t(e)-
r말동사	取る	00r-i=t(e)-	00t- =t(e)-	tot- =t(e)-
t말동사	勝つ	00t-i=t(e)-		kat- =t(e)-
w말동사	買ひ	00w-i=t(e)-		kat- =t(e)-

## 10.4 完了基형성의 조동사 =a(r)- (=ar-, =a-)

조동사 =a(r)- 는, 조동사 =t(e)- 에 연속하는 형태로 =t-φ=a(r)- 라고 하는 완료기(10.5 참조)를 형성한다. =a(r)- 는 이 기에 있어서만 기능한다. 그래서 「완료기형성의 조동사」라고 이름짓는다.

조동사 =a(r)- 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あり」에서 유래한다. (=t-φ=a(r)- 는, 고어의 완료의 조동사 「つ」의 연용형 「て」에 2변동사「あり」가 붙어서 생긴 「たり」에서 유래한다. 『日本文法大辞典』참조.)

조동사 =a(r)- 는, 뒤에 붙는 묘사사에 응해서 r음을 출몰시킨다. =ar- 를 공식적으로 =a(r)-로 표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t-\phi =\underline{a}-\phi \cup \quad =t-\phi =\underline{ar}-a(ba) \quad =t-\phi =\underline{ar}-oo \quad =t-\phi =\underline{ar}-i$$

조동사 =a(r)- 는, 단정기 -d=a(r)- (11.1②참조)의 =a(r)- 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는 조동속성(助動属性)이고(图10-11), 후자는 본속성(本属性)이기(图10-12) 때문이다. 이것은 구조도에서 명묘하게 구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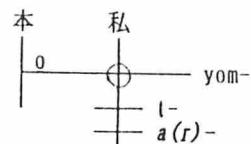


图 10-11 私は本を読ん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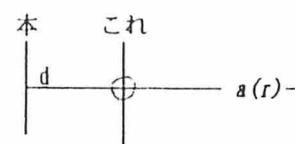


图 10-12 これは本だ(11-1②)

## 10.5 完了基 =t-φ=a(r)- (=t-φ=ar-, =t-φ=a-)

「基」란, 품사가 몇 개인가 모여 하나로 합쳐져서, 전체로서 일정의 구조형식과 의미를 가진다. 조동속성에는 「완료기」가 있다.<sup>18)</sup>

「완료기」는, 조동사 =t(e)-와 =a(r)-로 구성되어, =t-φ=a(r)- 라고 하는 형식을 취한다. (图10-13~15)

18) =te-만 관계하는 基라면, 多数의 것이 있다. 일례를 들면,

=te-φ=i-(～ている)

=te-φ=age-(～てあげる)

=te-φ=mi-(～てみ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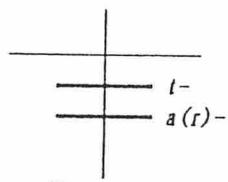


図10-13 ~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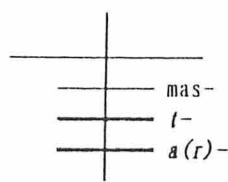


図10-14 ~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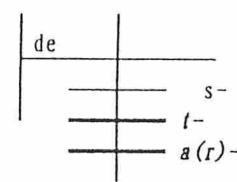


図10-15 ~でした

「완료기」는, 조동사  $=\text{ma}$  s-에 후속하며,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text{mas-i}=\text{t-}\phi=\text{a-}$  (~ました) (図10-14)

$-\text{de}=\underline{\text{s-i}}=\underline{\text{t-}\phi}=\text{a-}$  (~でした) (図10-15)

「완료기」는, 「동작 등의 완료(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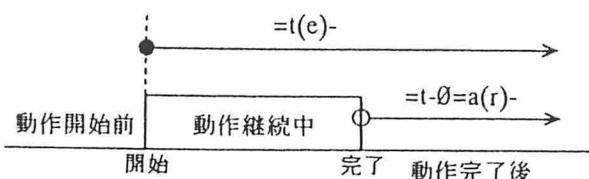


図10-16

「완료기」는, 「전개묘사사(展開描写詞) -a(ba)」와 결합하여, 동작완료후의 국면의 전개묘사를 준비한다.

$=\text{t-}\phi=\text{ar-a(ba)}$  (~たら(ば))

여기서 を押したら爆発する。(여기를 누르면 폭발한다.)

$-\text{d}=\text{ar-i}=\text{t-}\phi=\text{ar-a(ba)}$

(~だったたら(ば)) (11. 1②참조)

男の子だったたら, 「大輔」にする(남자아이라면, 「타이후; 옛날 관직의 하나」로 한다.)

$=\text{mas-i}=\text{t-}\phi=\text{ar-a(ba)}$

(~ましたら(ば))

終わりましたら、こちらへおいでください。(끝나면, 여기로 오세요.)

$-\text{de}=\text{s-i}=\text{t-}\phi=\text{ar-a(ba)}$

(~でしたら(ば)) (11. 1④참조)

赤い玉でしたら当たりです。(붉은 구슬이면 당첨입니다.)

## 10.6 형용속성과 完了基

완료기가 형용속성에 부가되는 경우는, 형용속성에 집접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기(8. 5)에 부가된다.

siro. k-  $\phi=\text{ar-i}=\text{t-}\phi=\text{a(r)-}$  (白かった)

형용기 완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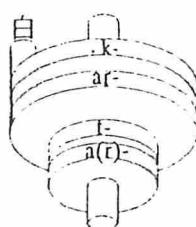


図10-17 白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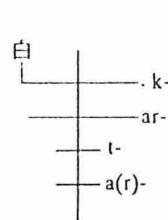


図10-18

## 10.7 完了基의 기본묘사와 실체수식묘사

동사 ar-에 적용되는 기본묘사사와 실체수식묘사사는, 둘다 -u라는 형식을 가지지만(ar-u), 완료기 =t-φ=a(r)-에 적용된 경우는 양자 모두 ar-u의 형태가 아니라, r-u의 부분이 생략되어 a만이 된다. 현대어에서는 그와 같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된다.

완료기를 기본묘사하는 테는 제로화된 기본묘사사 -φu를 사용한다.

買い物に de-φ=t-φ=a-φu (出た)。

ショッピングに行きました。

その料理はとてもおいしい k-φ=ar-i=t-φ=a-φu (おいしかった)

그 요리는 매우 맛있었다.

완료기를 실체에 수식시키는 테에는 제로화된 실체수식묘사 -φu (화살표로 표시)를 사용한다.

図書館で yom-i=t-φ=a-φu (読んだ)本 (図10-19)

도서관에서 읽은 책

若いころも utukus i. k-φ=ar-i=t-φ=a-φu (美しかった)人 (図10-20)

이렸을 적도 예뻤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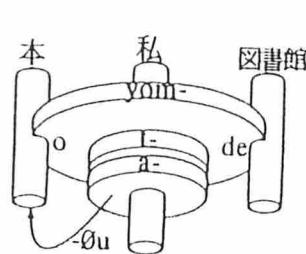


図10-19 読んだ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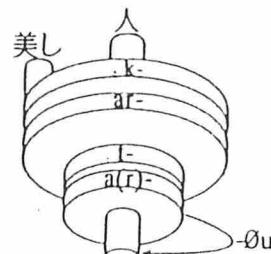


図10-20 美しかった人

て형의 「て」란 무엇인가? → p. 53

「書いた」의 「た」는 무엇인가? → p. 55

「である・です・だ」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p. 58

「だ」의 夕형은 왜 「だた」가 아니라 「だった」인가? → p. 58

왜 「です」는 「だ」보다도 정중한가? → p. 59

「ます→ません」「です」의 부정은 「でせん」이지 않은가? → p. 60

「で」의 격은 「に」의 격에서 생겼는가? → p. 68

「Aさんって」의 「って」란 무엇인가? → p. 70

목적어를 나타내지 않는 「を」도 있지 않은가? → p. 72

## 제11장

# 단정기

### 11.1 단정기(断定基)

단정을 나타내기 위한 기(基)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   |                |                      |          |
|---|----------------|----------------------|----------|
| ① | 「である(～이다)」     | -de=ar-              | (논문조)    |
| ② | 「だ(～이다)」       | -d =a(r)-            | (보통·비공손) |
| ③ | 「あります(～입니다)」   | -de=ar-i=mas-        | (연설조)    |
| ④ | 「です(～입니다)」     | -de=φ-φ=s-           | (공손)     |
| ⑤ | 「でございます(～입니다)」 | -de=go-za-φ=φ-i=mas- | (극존칭)    |

이 5개의 단정기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각각의 구조형식을 명확히 하면서, 생각해 나가도록 하자.

#### ① 「である(～이다)」 -de=ar-

図11-1은 「父 $\phi$ は公務員である(아버지는 공무원이다)」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図11-2는 그것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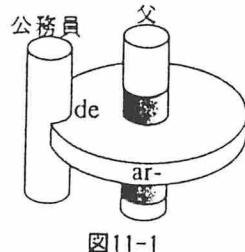


図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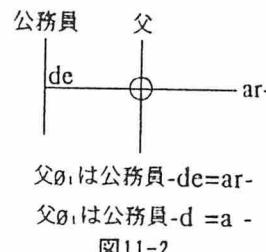


図11-2

(「である(～이다)」의 구조에 대해서는 1.2 및 2.9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

#### ② 「だ(～이다)」 -d=a(r)-

「だ(-d=a(r)-)」의 구조는 「である」의 구조(①) 그대로이다. 그러나 말로 묘사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음의 생략이 일어나므로 「だ」의 형식이 생긴다 (2.9 참조)

-de=ar-

↓

-d =a -

역사적으로는 デアル → デア → ダ로 줄어들었다고 전해진다.<sup>19)</sup> 구조는 그대로여도, 말

19) 『日本文法大辞典』 「だ」의 항에 「지정의 조동사(指定の助動詞) 『である』 → 『であ』 → 『だ』로 변화하여 생긴 것。(と変化してできたもの。)」이라고 나와 있다. 표층에서의 음형식이 이렇게 변화해도, 같은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구조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묘사법(변환법)이 시간과 함께 변화해 간다.

로 묘사할 때에 생략화(省力化; 발음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음을 생략하는 것)가 일어났던 것이다.

「だ」는  $-d=a(r)-$  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출물성(出没性)의 자음  $r$ 을 가지고 있다. 이  $r$ 의 존재가 왜 「だ」의 夕形이 「だた」가 아니라 「だった」와 같이 촉음을 동반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d=ar-i=t-\phi=a-\phi$

$-d=a\ t=t-\phi=a-\phi$  (10.3 표10-1참조)

이  $r$ 은 「だ」에  $-oo$ (실현가망묘사사(実現見込み描写詞)를 후접(後接)시킬 때, 두드려진다.

彼女  $\phi$  は公務員  $-d=ar-oo$

③ 「であります(～입니다)」  $-de=ar-i=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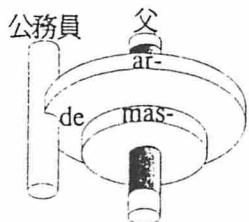


図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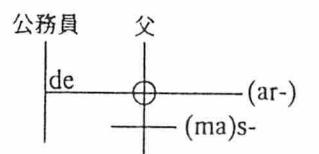


図11-4

图11-3, 4는 「父  $\phi$  は 公務員 であります」의 구조이다. 「父  $\phi$  は 公務員 である」라고 하는 구조(图11-1, 2)에 정중(丁寧)의 조동속성(助動属性)  $-mas-$ 가 덧붙여진 형태로 되어있다.

④ 「です(～입니다)」  $-de=\phi-\phi=s-$  ( $-de=s-$ )

「です」는 「だ」보다도 공손하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です(-de=s-)」는  $-de=ar-i=mas-$  「であります」에 유래한다. 图11-4의 ( )안에 표시되어 있는 요소를 생략하면 「です」가 된다.

$-de=ar-i=mas-$	(であります)
↓	↓
$-de=\phi-\phi=s-$	(で_____す)

표11-1참조

일본어에는 이런 타일의 생략이 있다. 특히 체육계의 짚은이들 사이에서 「オス」라고 하는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おはようございます」가 축소되어 된 것으로, 첫머리와 끝부분만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です」는 「であります」의 중간부분이 생략되어 생긴 형식이기 때문에 마치 이 「オス」와 닮는다.

「です」는 이렇게 「であります」의 구조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중의 조동속성(助動属性)  $-mas-$ 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だ」는 구조(图11-1, 2)에  $-mas-$ 를 가지고 있지 않다.

「です」가 「だ」보다 정중한 것은 이 이유이다.

그러나 이 「オス」적인 중간부 생략은, 부정문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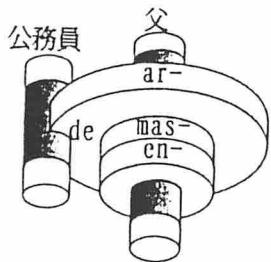


図11-5

「父ではなく公務員ではありません」

図11-5は図11-3の構造에 '-en-'이라고 하는 부정속성(否定属性)을 부가하여 부정구조로 만든 것이다. (부정구조에 대해서는 제31장 참조)

이 구조에서는 전부를 말로 해서 「ではありません」으로 묘사하지 않으면 안되고, 「でせん」 등의 생략형을 만들 수 없다. (「食べます( 않습니다)」의 부정은 「食べません(먹지 않습니다)」). 결국 「ます」의 부정은 「ません」이어도, 「です」의 부정은 「でせん」이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부정형으로 하면 생략이 되지 않고, 본래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본래의 구조가 명확해진다.<sup>20)</sup>

⑤ 「でございます(~이십니다)」 -de=go-za-∅=∅-i=mas- (-de=go-za-i=mas-)

「でございます」의 구조는 図11-6, 7에 나타난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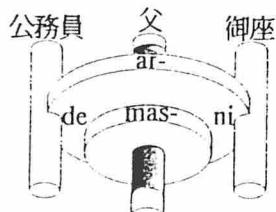


図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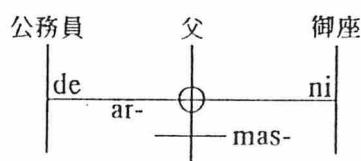


図11-7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であります」의 구조(図11-3)과 같지만, 「御座(ござ)」라고 하는 실체가 ar-라고 하는 속성에 「に格」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御座」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급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묘사법이 생략화(省力化)되어 와서, 도중에 「でござい

20) 부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본래적인 구조가 확실해지는 것은, 양상은 다르지만 한국어에서 도 볼 수 있다.

1) na-nun 田中 i-mni-da (私は田中です; 나는 다나카입니다.)

(私-は 田中 ari-mas-u..... 엄밀한 대용은 아니지만 참고까지는 가능함)

일본어에서 「私は田中です」라고 할 때에는 「田中」은 「で格」에 있다. 이것은 음형식에 나타나 있어 명백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田中」가 무슨 격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음형식으로는 조금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문장의 명사는 전부 무언가의 격에 있다고 하는 구조전달문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어 문장속의 「田中」가 무격(無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1)의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보자.

2) na-nun 田中ga an - i- mni-da. (私は田中ではありません; 나는 다나카가 아닙니다.)  
(私-は 田中が nai-ari-mas-u)

그러면 위와 같이, (주격을 나타내는)조사 ga가 나타난다. 보통은 ga an-전체로 부정형이 된다고 설명되어, 특히 ga만을 끄집어내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것에 의해 「田中」는 주격에 있는 것이 추정된다. (만약 이 ga가 주격조사라고 하면 「私」와 「田中」의 어느 쪽인가가 속성(属性) i-에 대해 주격에 있는 것이 되어, 한국어에서는 여기에도 이중주격이 존재하게 된다.)

ます」가 생겼다. 그 근세에서의 변화과정을 표11-1에 표시했다. (『日本文法大辞典「です」 항 참조)

표11-1

(go-za-ni=ar-i=mas-u)			
-de=go-za =ar-i=mas-u	でござります		
-de=go-z a r-i=mas-u	でござります		
◎ -de=go-z a -i=mas-u	でございます		
-de=go-z a r-i=n s-u	でござりんす	であります	
-de=go-z a =n s-u	でござんす	-de=ar-i=mas-u	
-de=g a =n s-u	でがんす		
-de=a =n s-u	であんす		
-de=e =s-u	でえす		
-de=s-u	です		

(=s-u의 -u는 무성화되어 있으므로 -ϕ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이외에도 「でやんす」·「でごいす」·「ざあます」·「ざんす」·「だす」등의 형태가 생겨났다.

여담이 되겠지만, 이대로 생략이 진행되면, 「で」조차 없어져버릴지도 모른다. 이미 「おやじは公務員す。」, 「これ、おいしいすね。」등의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100년도 넘게 지나면 「公務員です」등은 옛스러운 표현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です」가 지금처럼 널리 사용된 것은 명치(明治)20년대라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일본어 화자는 미래의 일본어 화자인 현재의 우리들이 「です」따위의 터무니없이 저급한 축약형을 사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에는 「す」도 필요없게 되어, 러시아어처럼 「ヤー・チャイカ」「わたしはかもめ(나는 갈매기)」만으로도 팬찮게 될지도 모른다.

### ◎ 5개의 단정기(断定基)의 상호관계

그러면, 이 장에서 얻어진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해 보자. 5개의 단정기의 상호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begin{array}{lll}
 \text{「である」} & = & \text{「だ」} \\
 \downarrow & \leftarrow + \text{ます} & \text{(동구조(同構造) · 이묘사(異描写))} \\
 \text{「あります」} & = & \text{「です」} \\
 \downarrow & \leftarrow + \text{御座(に)} & \text{(동구조(同構造) · 이묘사(異描写))} \\
 & & \text{「でございます」}
 \end{array}$$

그런데, 이 5개의 형식 전부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이미 분명한 것이지만 구조에 있어서 전부 -de=ar-(である)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이 5개의 형식은 전부 같은 기능을 가지며, 상호간에 바꾸어 말하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11.2 단정기의 실체수식묘사(1).....AであるB(A인 B)

단정기의 실체수식묘사는 한정되어 있다.

公務員である父が.....(공무원인 아버지가)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 公務員だ父が..... \* 公務員です父が.....

라고는 할 수 없다.

公務員であります父が..... 公務員でございます父が.....

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에는 ar-와 mas-의 실체수식묘사(実体修飾描写)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좋다.

우선, 「である -de=ar-」를 보면, 이 구조는 図11-1, 2와 같다. 이 =ar-에 실체수식묘사(4.2 2))의 -u의 화살표를 적용하면, 図11-8, 9와 같이 된다.

여기에 문제는 없고,

公務員-de=ar-u 父  $\phi_1$ は.....

가 얻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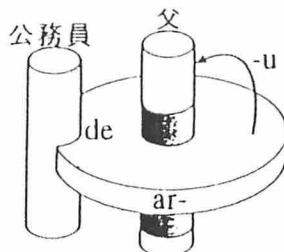


図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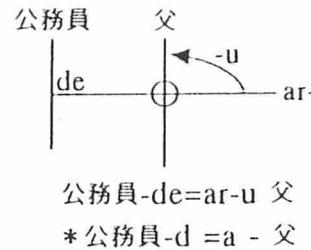


図11-9

그런데, 「だ -d=a(r)-」의 경우는 구조형식은 같은데, 이 「だ」라는 형식으로 묘사할 때에는 「기본묘사」의 -u가 -a(r)-에 제로화되어 결합되어 버리기 (-d=a- $\phi$  u) 때문에, -a(r)-는 「실체수식묘사(実体修飾描写)」의 -u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체수식묘사」의 -u를 붙여서

\* 公務員-d=a- $\phi$  u-父

라고 해도 수식묘사는 불가능하게 된다. (「기본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의 묘사가 완결된 것임을 나타내는 묘사이다. 4.2 1) 참조.)」

단, 실체가 포함실체(包含実体)의 「 $\phi$ 包」 「こと」 「もの」라면 수식묘사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u는 제로화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こと」 「もの」는 주체(主体) · 격체(格体)는 되지 않는다.

父  $\phi_1$ は公務員-d=a- $\phi$  u- $\phi$ 包-kara 定年がある。

まあ、立派な公務員-d=a- $\phi$  u こと。

だって、父が公務員-d=a- $\phi$  u もの。

「です -de=s-」의 구조는 図11-3, 4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であります」와 같은 것이지만, 이것도 「だ」의 경우와 비슷해서, 「です」라고 하는 형식으로 묘사할 때에는 「기본묘사」의 -u가 s-에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de=s-u), 「실체수식묘사」의 -u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 公務員-de=s-u 父

가 불가능하게 된다.

「であります」, 「でございます」의 묘사에서는, 조동사 mas-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실체수식묘사의 -u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公務員-de= ar-i =mas-u 父

公務員-de=goza-i=mas-u 父

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형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명사를 수식할 때에도 정중(丁寧)의 조동사 =mas-를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정기의 실체수식묘사는 「である」의 형식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 11.3 단정기의 실체수식묘사(2).....AなB.....「な基」

단정기에는 역사적으로 다른 타입이 존재한다.

-ni=ar- 「にあり」

가 변화하여 나라시대(奈良時代)에 발생한

-n=ar- 「なり」

이다. (여기에서는 「たり」는 다루지 않는다.) 「...である(...이다)」라고 단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汝たちもろもろは、吾が近き姪なり(続紀宣命一七)

너희들은, 나의 가까운 조카이다.

이상『岩波古語辞典』p1482 참조

i) 「なり」는『日本文法大辞典』(p611)에 의하면,

나라·헤이안시대에 가장 변성했고,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서 형태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단언적인 것은 「である」의 방향으로, 형상적인 것은 「な」의 방향으로 변화하여 존재했다. (奈良·平安時代に最も栄え、鎌倉時代にはいると形が崩れはじめ、断言的なものは「である」の方向へ、形狀的なものは「な」という方向へ変じて存在した。)

라고 한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n=a-φu의 형식으로

nigiyaka-n=a-φu (にぎやかな町(변화한 마을) 図11-11)

과 같이, 형상적인 의미를 가진 실체(にぎやか)를 「に格」에 두고, 이것을 실체수식묘사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φu」는 실체수식명사사가 제로화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である」의 구조에서는 「である」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사를 수식한다(11.2).....図11-10)

또, 다음과 같이 노형식실체(36.6)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sizuka-n =a-φu の を聞く (静かなのを聞く(조용한 것을 듣다 図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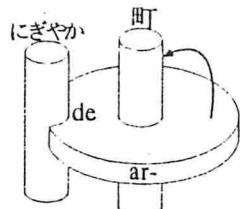


图11-10 にぎやかである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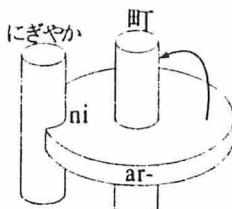


图11-11 にぎやかな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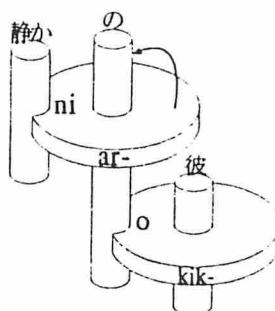


图11-12 静かなのを聞く

图11-11, 12의 두 예는 비포합실체를 수식하는 경우이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포합실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健康-n=a-φu のでうれしい (图11-13)

(皆が健康なのでうれしい)

와 같이 형상적인 의미를 갖는 실체(健康)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실체(学生)에도 -n=a-φu의 형식이 가능하다.

学生-n=a-φu ので送金する (图11-14)

(弟が学生なので、父は毎月送金する(남동생이 학생이어서, 아버지는 매달 송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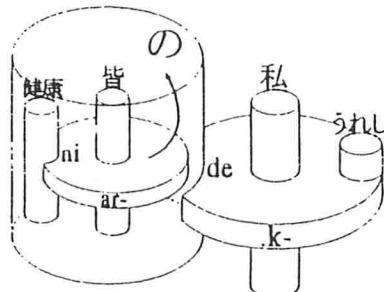


图11-13 皆が健康なのでうれし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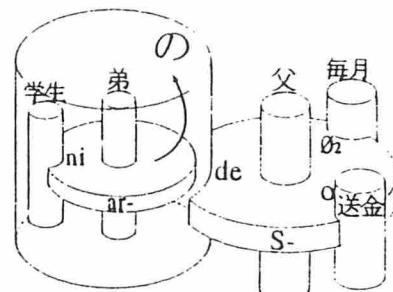


图11-14 弟が学生なので送金する

이 -n=a-φu는 이처럼, 단정기의 소위 실체(명사)修飾専用의 형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な基」로서 취급하기로 한다. 「な基」의 기본적 구조는 图11-15, 16와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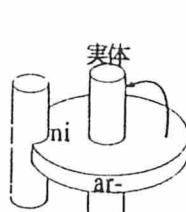


图11-15 「な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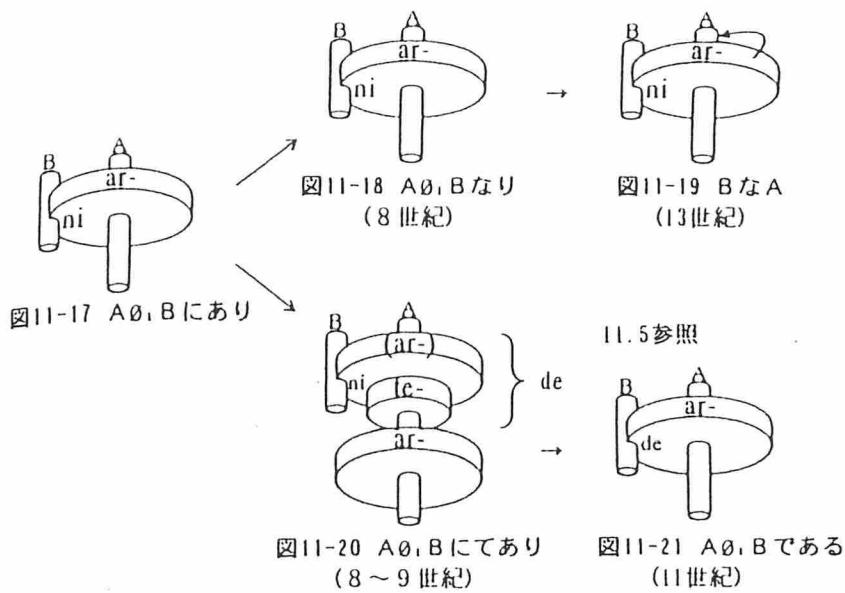


图11-16 包含実体の「な基」

(「自由な女神( 자유로운 여신 )」과 「自由の女神( 자유의여신 )」의 차이에 대해서는 37.6 참조)

또, 「な」와 「である」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묘사적 변화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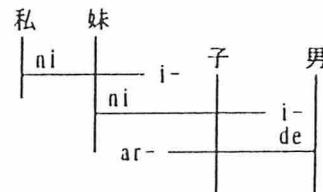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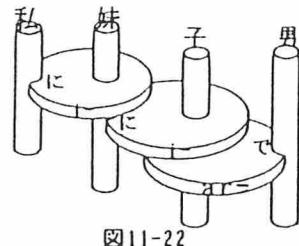
$$\begin{array}{c} -ni=ar- \quad \left\{ \begin{array}{l} -n=ar- \\ -ni=\emptyset-\emptyset=le-\emptyset=ar- \\ \rightarrow d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l} -n=a-\theta u \\ -de=a-\theta u \end{array}$$



#### 11.4 형식단정기 (妹は男です)

그럼 다음으로, 형식만의 단정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형식만의 단정기의 대표로서 「です」를 고르기로 한다. 그 외의 4형식(だ・である・であります・でございます)은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지금, 이와 같은 구조가 여기에 있다.



이 구조로부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표충문이 묘사된다.

私は男の子がいる妹がいる。

나에게는 남자아이가 있는 여동생이 있다.

私は男の子のいる妹がいる。

나에게는 남자 아이가 있는 여동생이 있다.

私の妹には男の子がいる。

나의 여동생은 남자아이가 있다.

私の妹の子は男である。

나의 여동생의 아이는 남자이다.

私の妹の子は男だ。

나의 여동생의 아이는 남자이다.

男の子が私の妹にいる。

남자 아이가 나의 여동생에게 있다.

이것들에서는 전부의 요소가 묘사되어 있고, 계다가 속성이 맨 마지막에 묘사되어 있기 때

문에 술이로서 끝맺는 통상의 문장의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상황등으로부터 필요한 요소만을 묘사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うちの子は女(우리애는 여자)」라고 말한 뒤에, 위의 구조를 묘사할 때에는  
妹は男。

여동생은 남자.

만으로 충분하다. 상황의 도움을 빌린다면, 부분묘사로서 구조전체가 전달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통상의 문장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문장과 비슷하게 하려면 단정기「です」를 후접(後接)시켜서

妹は男です。

여동생은 남자입니다.

라고 표충화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통상의 문장을 띠고 있지만, 이「です」는 형식적인 것이다. 만약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장의 의미가「男である妹(남자인 여동생)」이 되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문장의 형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형식적 단정기가 사용된다. 그 구조는 図11-24와 같다. 어떤 구조를 제로의 포함실체(包含実体)(6.6참조)에 넣어서, 그 포함실체를 단정기의「で格」에 둔 것이 된다.<sup>21)</sup>

이 단정기와 포함실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어서, 다음의 3개의 특징이 있다.

① 단정기의 主体(굵은 점선으로 표시)는 가주체(仮主体)로, 특별히 무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

② 포함실체(包含実体) $\phi$ (장방형의 점선태로 표시)도 매우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의 부구조는 통상의 포함실체내의 부구조(副構造)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부구조는 주구조(主構造)와 같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図11-24에 있어서 「(妹の)子(여동생의) 아이」는 속성 ar-에 대해서 3종류의 주격( $\phi_1$ ,  $が_1$ ,  $が_2$ )의 어느 것이라도 취할 수 있다.

③ 통상의 부구조묘사(副構造描写)와는 다르므로 동속성(動属性)을 실체수식묘사(実体修飾描写)(-r)u描写)해서 제로포함실체를 수식시킬 수 없다. 만화적 표현이 되어버린다.

\*私の妹の子は男で ar-u  $\phi$ 包です。(男であるです／あるつ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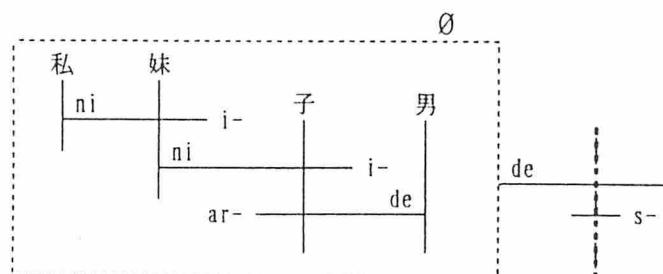


図11-24

다른 예도 들어보자.

21) 사정설명등에 사용되는「のです」는 형식은 닮아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의 것이다. (37.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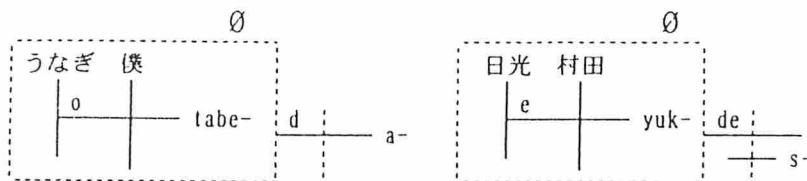


図11-25 僕はうなぎだ。  
・うなぎを食べるだ。

図11-26 村田さんは日光です。  
・日光へ行くです／っす。

형식단정기는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나, 완전히  $-de = \phi - \phi = s-u$ 나  $-d = a - \phi$ 로 고정되어 버린 것은 아니고,

村田さんは日光  $\phi - de = \phi - \phi = s-i = t - \phi = a - \phi$  (でした)

村田さんは日光  $\phi - d = ar - i = t - \phi = a - \phi$  (だった)

村田さんは日光  $\phi - de = \phi - \phi = s-yoo$  (でしょう)

村田さんは日光  $\phi - d = ar - oo$  (だろ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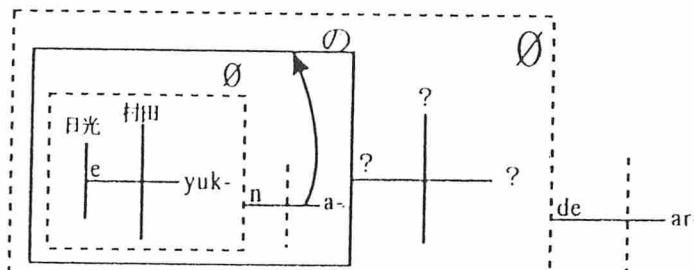
와 같이, 완료형식이나 추량형식(推量形式)이 될 수 있고, 또

村田さんは日光  $\phi - de-wa=ar-i=mas-en-\phi$  (ではありません)

과 같이, 부정형식도 될 수 있다. (부정에 대해서는 제30, 31장 참조)

그리고, 다음과 같이 형식단정기(形式断定基) 그 자체가 「のだ基」(37. 1) 안의 포함실체 「の」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なのだ」가 되는 경우도 있다.

村田さんは日光  $\phi - n=a - \phi$  の  $- \phi = \phi - \phi = \phi - d = a - \phi$  (なのだ)



이상, 이 형식단정기 덕택에 가능한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계다가 문장으로서의 체재를 지키면서 전달할 수 있다.<sup>22)</sup>

## 11.5 「で格」의 탄생

### ① 「で」의 의미

22) 図11-25, 26과 같은 구조로부터 생성되는 표층문을「うなぎ文」と라고 이름짓고、「だ・です」가 술어의 대용이 된다고 설명하는 입장이 있다. 표층의 형식을 다루는 한은 흡사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말해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僕はうなぎだ。 ← 僕はうなぎを食べる。

나는 장어이다 ← 나는 장어를 먹겠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드리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 「だ・です」가 대용에 의해 왜 「食べる・行く」등으로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는 이해되지 않는다. 「だ・です」는 영어의 do와는 거의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で」에는 여러 개의 동명격(同名格)이 있다. 『三省堂 現代国語辞典』에 의하면,

- (1) 장소를 나타낸다. 「砂場で遊ぶ (모래밭에서 놀다)」
- (2) 수단 · 방법을 나타낸다. 「鉛筆で書く (연필로 쓰다)」
- (3) 재료 · 원료를 나타낸다. 「紙で作る (종이로 만들다)」
- (4) 원인 · 이유를 나타낸다. 「病氣で休んでいる (병으로 쉬고 있다)」
- (5) 시간 · 기간 · 연령 · 금액 · 수량 등을 나타낸다. 「あと一時間で終わる (한 시간 후에 끝난다) · 六十歳で退職した (60살로 퇴직했다) · 千円で買う (천엔으로 사다)」
- (6) 기초를 둔 부분을 나타낸다. 「規則で許されている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다)」
- (7) 주체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警察で原因を調べている (경찰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8) 상태를 나타낸다. 「すごい速さで飛ぶ (무서운 속도로 날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조동사 「だ」의 연용형의 용법으로서  
 「あちらは弟で、こちらが兄だ (저쪽은 동생이고, 이쪽이 형이다)」  
 라고 하는 예가 들어져 있다.  
 왜 「で」에는 의와 같은 의미(동명격(同名格))가 있는 것일까. 「で」격의 탄생에 이르는 경위를 아는 것에 의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で」는 「にて」에서 생겨났다.

『岩波古語辞典』 p. 1491에 의하면, 격조사 「で」는 「にて」가 변해서 생긴 것(nite → nte → nde → " de)으로, 헤이안(平安)중기 무렵부터 사용되어, 가마쿠라(鎌倉)시대 이후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장소 · 수단 · 원인 · 상태 등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 「にて」란 것을 무엇일까. 같은 페이지에는

격조사 「に」와 접속조사 「て」와의 복합이다. 나라시대의 후반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서 발생했다. (格助詞「に」と接続助詞「て」との複合である。奈良時代の後半から平安時代にかけて生じた。)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격조사 「に」에 접속조사 「て」가 직접 붙는 것은 구조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를 묘사하는 전제하의 사건이 되는 것이 된다.

확실히, 『日本文法大辞典』 「にて」의 항에 의하면, 상고시대(上代)에는 「장소 · 때」을 나타내는 「にて」에는 「にして」의 형태를 취하는 편이 훨씬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し」는 サ変動詞(サ변동사) 「す」의 연용형으로 「にありて」 「において」 등에 있어서의 「ある」 「おく」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にて」보다 전에 「にして」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서, 의미는 「にありて」 「において」였다. 구조는 図11-28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 구조가 「にて」라고 하는 형식으로 묘사된 것이다. 「にて」는 소위, 「基」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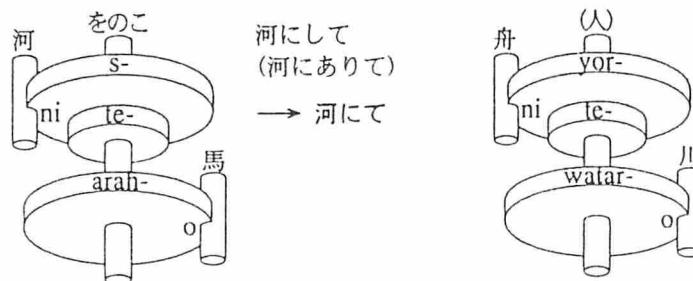


図11-28 河にて馬あらふをの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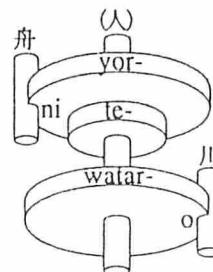


図11-29 川を舟にて渡る

그리므로, 「수단·원인」에 대해서는 「に(より)て」를 유추(類推)로 보충해서 (즉, 구조상에서는 s-를 yor-로 바꾸어(图11-29), 다음과 같이 해서 「にて」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소·시간]	にして (にありて, において)	}	→ 「にて」
[수단·방법]	によりて		

『日本文法大辞典』 「にて」 항 등으로부터 용례 몇 가지를 간략화하여 인용해 보겠다.

「장소·시간」 河にて馬あらふをのこ	(にありて)
十二にて御元服したまふ	(にありて)
「자격·상태」 母は筑前守の妻(メ)にて下りにければ	(にありて)
家の人の、皆、男子にて生まれよかし	(にありて)
「수단·방법」 深き川を舟にて渡る	(によりて)
火にて物いりなどして	(によりて)
「원인·이유」 竹の中におはするにて知りぬ	(によりて)
これにてこそしりぬれ	(によりて)

「にて」가 무엇인가는 이것으로 알았다.

### ③ 「で」의 탄생을 구조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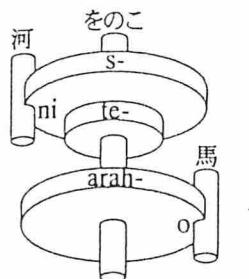


图11-28再掲「に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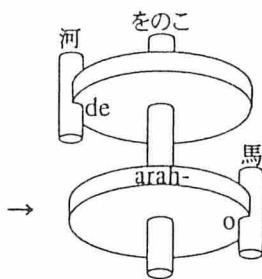


图11-30 河で馬あら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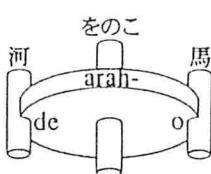


图11-31 河で馬あらふ

「で」는 이런 「にて」의 구조(图11-28)로부터 생겼다. 「にて」의 다음에 과도적(過渡的)인 격의 「で」(图11-30)가 생기고, 그것이 중계가 되어 현재의 「で」격(图11-31)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④ 「で」는 「に(あり)て」 「に(より)て」로 환원할 수 있다.

본절(本節) 첫머리에 인용한 예문도 전부 「にて」, 더욱이 「にして」, 「にありて(において)」 대지 「によりて」로 환원할 수 있다.

- (1) 장소를 나타낸다. 「砂場 にありて 遊ぶ (모래밭에서 놀다)」
- (2) 수단·방법을 나타낸다. 「鉛筆 によりて 書く (연필로 쓰다)」
- (3) 재료·원료를 나타낸다. 「紙 によりて 作る (종이로 만들다)」
- (4) 원인·이유를 나타낸다. 「病気 によりて 休んでいる (병으로 쉬고 있다)」
- (5) 시간·기간·연령·금액·수량 등을 나타낸다. 「あと一時間 にして 終わる (한 시간 후에 끝난다)」 · 六十歳 にありて 退職した (60살로 퇴직했다) · 千円 によりて 買う (천엔으로 사다)」

- (6) 기초를 둔 부분을 나타낸다. 「規則によりて 許されている」(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다)
- (7) 주체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警察にありて 原因を調べている」(경찰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8) 상태를 나타낸다. 「すごい速さによりて/ありて 飛ぶ」(무서운 속도로 날다)
- 또, 국문법의 소위 조동사 「だ」의 연용형의 경우, 「あちらは弟で、こちらが兄だ(저쪽이 동생이고, 이쪽이 형이다)」라고 하는 예에서는,  
 「あちらは弟にありて、こちらが兄だ」  
 라고 환원가능하다.

그런데, 「9時で店を閉める(9시에 가게를 닫는다)」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9時に至りて店を閉める(9시에 가게를 닫는다)」

와 같이 그 나름의 동속성(同属性)을 설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것도 있다.

##### ⑤ 「って(=と)」 ← 「とて」

『토사일기(土佐日記)』의 첫머리(冒頭)에 이러한 문장이 있다.

男もするる日記といふものを、女もしてみむとてするなり

(남자도 쓴다는 일기라고 하는 것을, 여자도 해본다고 생각해서 한다)

이 문장에 있는 「とて」는 「격조사 + 접속조사」의 구성으로, 구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にて」와 같다. 이 「とて」는 「と言つて」 등으로 부터 생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日本文法大辞典』참조)

「とて」 ← と言つて、と思つて

「にて」로부터는 새로운 격 で가 생겼지만, 여기에서는 구어적 격사 「って」가 생겨나고 있다. (-tote → -tte) (図11-32 → 33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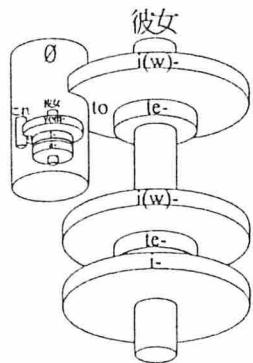
彼女、これ読んだって言ってる (図11-34)

그녀는 이것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다

この店でいちばんおいしいんじゃないかって思いますけど.....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って」는 쉽게 「と」로 바꾸어쓸 수 있기 때문에, 「で」의 경우와 달리, 새로운 격으로서 인식되는데 까지는 달하지 않았다. 격은 「と」격인 채로, 격사만이 구어적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서, 결국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음운(音韻)상의 변화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読みだとて言ってる → 読んだって言ってる → 読んだって言ってる

図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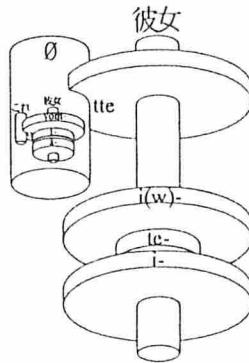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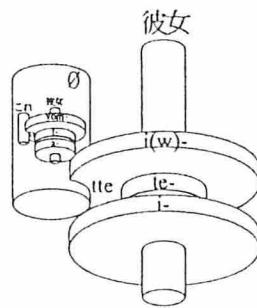


図11-33



= 読んだと言て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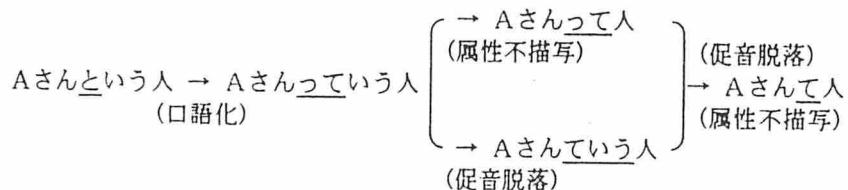
図11-34

또, 「って」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법이 있다.

Aさん(つ)て人、知ってる?

A씨라는 사람, 알고 있어?

「って」에 명사수식기능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변화, 즉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묘사상의 음운적(音韻的)인 변화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묘사상의 축약이 진행되어도, 구조는 유지되고, 의미는 「という(라고 한다)」를 유지하고 있다. (図11-35)



그리고, 더욱이 「人」까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Aさん(っ)て、知ってる?

더욱이 덧붙여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도 생기고 있다. 이것도 묘사상의 음운적인 변화로 구조는 본래대로이다. (図11-36)

Aさんという人 → Aさんちやう人 → Aさんつう人  
(t구개화축약) (비구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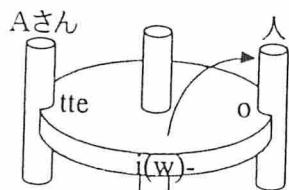


図11-35 Aさんていう人  
Aさんつて 人  
Aさん ていう人  
Aさん た 人  
Aさん 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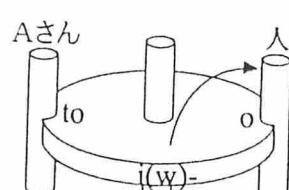


図11-36 Aさんという人  
Aさんちゅう人  
Aさんつう人

「さん」は(待遇)描写詞(5-2(4))

◎ 「人」는 주격에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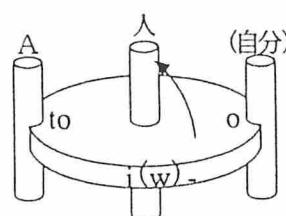


図11-37 A(さん)という人

⑥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경

「にて・とて」는 발생했으나, 「がて・をて・へて・からて・よりて」는 발생해도 좋을 듯한데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상이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일 것이다.

「に」격에 놓여진 명사류는 시간·장소·원인등 일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 많고, 또, 「と」격에 놓여지는 것은 발화(發話)나 사고(思考)의 내용인 경우가 많다.<sup>23)</sup> 동시에 동속성과의 결합에 경향성이 있어 이 양자는 「基」가 되기 쉬웠다. 그런데 「が」·「を」양격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성이 없다. 따라서 「基」가 되기 어려웠다.

또, 「へ・から・より」의 격은 경향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基」가 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にて・とて」 이외에도 「格詞+て」의 형식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 11.6 일본어본래의 격

「で格」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奈良)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옛 격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① 주격(主格)..... 원래 일본어에는 움직임·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격(주격)을 나타내는 격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속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주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격사에 의해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무로마치(室町)시대 이후, 주격사 「が」가 사용되게 되었다. (『岩波古語辞典』 p. 1487)

『구조전달문법』에서는 3종류의 주격을 설정하고 있다. 제1의 주격에는 아직도 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무로마치이후 주격사로서 기능하게 된 「が」는 제2, 제3의 주격을 표시하는 격사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2)

	奈良	室町	現代
제1주격	φ	—————→	—————→
주격	제2주격	φ	가—————→
	제3주격	φ	が—————→

図11-38

② 목적격(目的格)..... 본래의 일본어에서는 목적격에는 조사가 필요 없었다. (『岩波古語辞典』 p. 1489참조) 타동사적인 속성에서는 목적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일부러 격사를 사용해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표면상의 논리성이 의식되기 시작한 결과, 대상을 확인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던 감동사(感動詞) 「を」가 목적격 표시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한문훈독(漢文訓読)을 통해 정착하게 되었다.

「を」는 원래 없어도 되는 것으로, 현대에서도 구어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奈良	現代
목적격	φ—————→	—————→
	を—————→	—————→

図11-39

더구나, 「を」는 본래 감동사여서, 목적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상을 확인

23) 동작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と」를 사용하나, 이것은 기원적으로 동일한지 아닌지는 의문이다. (『岩波古語辞典』 p. 1490)

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목적어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지는 않다. 「瀬を早み...」 고전어에서는 주체를 나타내고, 「道を行く(길을 가다)・橋を渡る(다리를 건너다)」에서는 경유지를 나타내고, 「世をすねる・何をあわてて(세상을 등지다・무언가에 당황하여...)」에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 ③ 「に格」…… 동작의 일어남·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략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사용도수도 많고, 여러 가지 용법을 전개하고 있다.  
(『岩波古語辞典』 p. 1488 참조)

奈良	現代
に 格	に —————→

図11-40

주격, 목적격 같이 동사에 필수인 격은 일부러 격사를 사용해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に」는 매우 중요한 격이지만 동사에 필수적인 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격사에 의해 명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극히 적고 사용도수가 많았다고 여겨진다.

- ④ 「へ格」……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 이전은 이동성동작(移動性動作)이 화자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목표에 향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원정기(院政期)에는 전체의 이동성동작의 목표를 표시하는 용법이 생겨났다. 鎌倉時代에는 도착점·방향을 나타내는 용법이 생겨났다. 무로마치(室町) 시대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용법이 생겨났다. (『日本文法大辞典』 참조)

	奈良	室町	現代
へ 格	遠くへ 移動目標 着点・方向 場 所	へ————→ へ————→ へ————→ へ————→	————→

図11-41

- ⑤ 「で格」……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에 생겨났다. (11.5에서 상세하게 진술했음)

奈良 平安中期	現代
で 格	で —————→

図11-42

- ⑥ 「と格」…… 나라(奈良)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日本文法大辞典』 참조)

奈良	現代
と 格	と —————→

図11-43

⑦ 「から格」……「から」는 나라(奈良)시대에 체언으로부터 조사로 전화되는 과정기에 있었다. (『日本文法大辞典』 참조)

奈良	現代
から格	から →

図11-44

⑧ 「より格」……나라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동계(同系)의 말인 「ゆ・ゆり・よ」는 헤이안(平安)시대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日本文法大辞典』 참조)

奈良	現代
より格	より →

図11-45

⑨ 「まで格」……「まで」를(격조사가 아니고) 副助詞로 하는 것은 山田孝雄(야마다요시오)의 설에 의하는 것이지만、「より・から」와 상관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앞의 語句에 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助動詞動詞詳説』 p. 528 참조)  
이 「まで」는 나라(奈良)시대에는 격표시형태로서 이미 출현해 있었다. (36. 9 <p. 312> 참조)

奈良	現代
まで格	まで →

図11-46

⑩ 「 $\phi_2$ 格」……이 격에 대해서는 2.7에서 진술했다. 이 격은 국어문법에서는 제1주격(第1主格)( $\phi_1$ 格)과 같이 정당한 취급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류에서는 격으로서의 기술이 없다. 그러나 용례는 많다. 일례를 들어보자.

朝猶 (アサカリ)にいま $\phi_2$ 立ちすらし (万葉集 1·3)

(아침 수렵에 지금 가시는 것 같다)

馬並 (ナ)めて朝 $\phi_2$ 踏ますらむその草深野 (万葉集 1·4)

(말을 열지어 아침에 걷게하는 것 같은 그 풀금)

今年 $\phi_2$ 行く新島守 (ニヒシマモリ)が麻衣 (万葉集 7·1265)

(올해 가는 니히시마 수비의 삼베 옷)

昨日 (キノフ)  $\phi_2$ 見て今日こそへだて吾妹子が (万葉集 11·2559)

(어제 만나서 오늘 헤어지는 내 여동생)

去年 (コゾ)  $\phi_2$ 焼けて今年作れり (方丈記 · ゆく河)

(작년에 불 태우고 올해 만들다)

奈良	現代
$\phi_2$ 格	$\phi_2$ →

図11-47

### ◎ 주격 · 목적격의 특수성

이상으로부터 주격 · 목적격(を格), 그리고 「 $\phi_2$ 格」이 다른 격과 양상을 달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다른 격에서는 격사의 존재가 다름아닌 그 격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데에 비해 주격(제1주격) · 목적격 ·  $\phi_2$ 격에서는 격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그 격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phi_2$ 격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주격 · 목적격의 특수성에 대해서 진술한다.

주격과 목적격이 격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동사가 반드시 주체를 가지고, 많은 경우 목적어가 되는 객체를 가진다고 하는 동사의 성질, 그 자체에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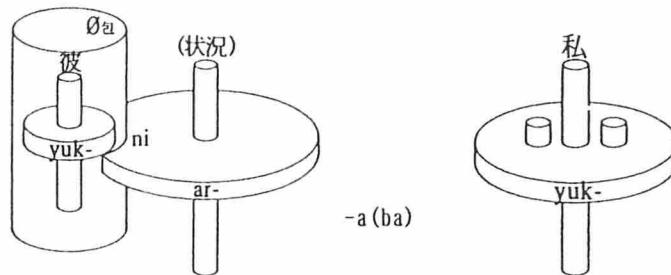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주체와 목적격 객체가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특히 그것을 일부러 격사를 사용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쪽을 격사「を」를 사용해 표시한다. 특히 문어체에서는 처음부터 이 격관계를 명시하도록 한다. 주격 쪽은……제1주격이지만……명시하려고 해도 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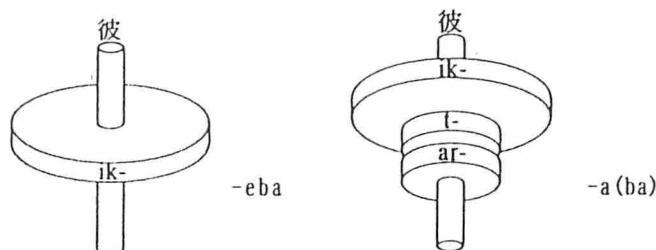
제1주격사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1주격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비존재를「は」가 보충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が」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主格」과「を格」이 다른 격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특히「主 · を格」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표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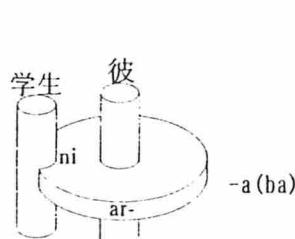
### 条件表現の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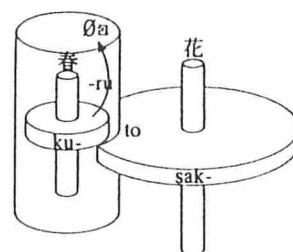
図A 彼が行くなら  $yuk-u \emptyset\text{包}-n = ar-a(ba)$ , 図B 私も行く



図C 彼が行けば  $ik-eba$ , 図D 彼が行ったら  $ik-i=t-\emptyset=ar-a(ba)$



図E 彼が学生なら～  
学生-n = ar-a(ba)



図F 春が来ると花が咲く  
 $ku-ru \emptyset\text{包}-to$